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백혜선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노래중심 음악치료가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2016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치료학과

방은미

노래중심 음악치료가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백혜선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치료학과

방은미

# 인 준 서

방은미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6년 5월

심사위원장 .....(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 .....(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 .....(서명 또는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본 연구는 노래중심 음악치료가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인천시 S구의 지역아동센터 저소득층 아동 16명으로, 실험집단 8명과 통제집단 8명으로 구분하여 무선배치 하였다.

노래중심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기간은 2016년 2월 29일부터 3월 30일까지이며, 회기 당 60분씩, 주 2회로 총 10회기에 걸쳐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노래 감상하기, 노래 부르기, 노래 대화하기, 노래 가사 토의하기, 노래 만들기(노랫말 채우기, 개사하기)의 기법을 포함한 노래중심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노래중심 음악치료 활동 전·후로 자아탄력성 척도와 또래관계 척도를 사용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통계 프로그램에서 빈도 분석, Mann-Whitney U 검정, 순위 공변량분석(Ranked ANCOVA), Wilcoxon 대응 쌍 부호순위검정(Wilcoxon Matched-Pairs Signed-ranks)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통제집단은 자아탄력성과 또래관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p > .05$ ), 실험집단은 자아탄력성( $F(1, 14)=16.86, p < .01$ )과 또래관계( $F(1, 14)=44.87, p < .001$ )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노래중심 음악치료가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또래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적 중재방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목 차

## 논문개요

<b>I. 서론</b>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가설 .....	5
<b>II. 이론적 배경</b> .....	6
1. 저소득층 아동 .....	6
1) 저소득층 아동의 개념 및 현황 .....	6
2) 저소득층 아동의 심리적 특성 .....	7
2.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또래관계 .....	9
1) 자아탄력성의 개념 및 특성 .....	9
2) 또래관계의 개념 및 특성 .....	10
3.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노래중심 음악치료 .....	12
1)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음악치료 .....	12
2) 노래중심 음악치료의 치료적 가치와 의미 .....	13
3)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노래중심 음악치료 .....	17
<b>III. 연구방법</b> .....	21
1. 연구대상 .....	21
2. 측정도구 .....	21
3. 연구설계 및 절차 .....	23
4. 음악치료 프로그램 구성 .....	24
5. 자료분석 .....	33

<b>IV. 연구결과</b>	<b>35</b>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동질성 검정	35
2. 노래중심 음악치료가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37
3. 노래중심 음악치료가 저소득층 아동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43
<b>V. 결론</b>	<b>50</b>
1. 결론 및 논의	50
2. 제언	52

참고문헌

ABSTRACT(영문초록)

부 록

## 표 목 차

<표 III-1> 자아탄력성 척도의 하위요인 및 신뢰도 .....	22
<표 III-2> 또래관계 척도의 하위요인 및 신뢰도 .....	23
<표 III-3> 사전사후검사 통제집단 설계 구성 .....	23
<표 III-4> 노래중심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회기 구성 .....	25
<표 III-5>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단계별 목표 .....	26
<표 III-6> 매 회기별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구성 .....	30
<표 IV-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36
<표 IV-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 동질성 분석 .....	37
<표 IV-3> 자아탄력성 전체점수 순위 잔차의 평균과 표준편차 .....	38
<표 IV-4> 자아탄력성에 대한 순위 공변량분석 .....	38
<표 IV-5> 자아탄력성에 대한 Wilcoxon 대응 쌍 부호순위검정 .....	38
<표 IV-6> 자아탄력성 전체점수 순위 잔차의 평균과 표준편차 .....	40
<표 IV-7> 자아탄력성 하위요인에 대한 순위 공변량분석 .....	41
<표 IV-8> 자아탄력성에 대한 Wilcoxon 대응 쌍 부호순위검정 .....	42
<표 IV-9> 또래관계 전체점수 순위 잔차의 평균과 표준편차 .....	44
<표 IV-10> 또래관계에 대한 순위 공변량분석 .....	44
<표 IV-11> 또래관계에 대한 Wilcoxon 대응 쌍 부호순위검정 .....	44
<표 IV-12> 또래관계 전체점수 순위 잔차의 평균과 표준편차 .....	46
<표 IV-13> 또래관계 하위요인에 대한 순위 공변량분석 .....	47
<표 IV-14> 또래관계에 대한 Wilcoxon 대응 쌍 부호순위검정 .....	48

## 그림 목 차

<그림 IV-1> 자아탄력성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평균점수 .....	39
<그림 IV-2> 대인관계 .....	42
<그림 IV-3> 활력성 .....	42
<그림 IV-4> 감정통제 .....	43
<그림 IV-5> 호기심 .....	43
<그림 IV-6> 낙관성 .....	43
<그림 IV-7> 또래관계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평균점수 .....	45
<그림 IV-8> 사회적지지 .....	48
<그림 IV-9> 처벌주도권 .....	48
<그림 IV-10> 친밀 .....	49
<그림 IV-11> 우의 .....	49
<그림 IV-12> 대립 .....	49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가정, 학교, 사회 환경 속에서 다양한 경험과 교육을 통해 성장하며, 사회화의 과정을 겪는다. 그 중 가정은 인간이 태어나서 최초로 경험하는 사회적 집단으로 아동이 접하는 가정환경과 부모의 양육은 아동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갖는다(김호정, 김나영, 2009). 가정이 올바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겪게 되는 아동의 심리적 불안과 갈등상황은 신체적·인지적·사회 심리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아동기에 낮은 자아존중감, 사회성의 결여, 열등감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강윤정, 1999; 서나현, 정여주, 2009).

현대사회는 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빈곤가정, 한부모 가정, 결손가정, 조손가정 등과 같은 취약 계층이 증가하고 있다(조정애, 강경선, 2014). 이러한 사회구조로 인해 가정에서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과 충분한 지지, 격려를 받지 못하는 등 부적절한 정서를 경험하는 아동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임희원, 2014).

보건복지부(2014)의 자료에 의하면 2001년에 69만 8천 가구이던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는 2005년에는 80만 9천 가구, 2014년에는 90만 5천 가구로 증가했으며, 이 중 아동 및 청소년의 약 11.5%가 상대적으로 빈곤한 가구에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양부모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3.9%, 한부모·조손 가구가 포함된 취약 계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6.6%로 취약 계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12배가량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로 인한 문제가 심각함을 시사한다(아동종합실태조사, 2013).

저소득층 부모의 경제적인 빈곤은 아동의 건강, 학교생활적응 및 사회·정서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지적된다(Duncan & Brooks-Gunn, 1999). 고된 경제활동을 마치고 돌아온 부모는 아동에게 긍정적인 지지, 충분한 지도나 부모의 역할을 수행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고, 부모와의 관계에서 올바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아동은 또래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김효지, 2010). Qi와 Kaiser(2003)는 부적절한 부모의 양육방식으로 인해 아동은 또래집단 속에서 또래관계 형성이 어렵고, 또래와의 친밀감을 형성하지 못하게 되며, 이는 이후에 아동의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을 위한 사회적인 능력의 결여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김서안, 권영란, 2016, 재인용).

아동의 또래관계는 사회에 적응하는 방법을 배우고 또래와의 원만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인성 발달에도 영향을 미쳐 아동기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권진혁, 2015). 김보라와 이규민(2010)은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방식과 연관되어 또래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자아탄력성을 보고하였다.

자아탄력성이란 보통의 사람들이 문제 상황이나 스트레스 상황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적응기제로서(Masten, 2001),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긴장이나 불안감을 적절히 해소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개인의 내적 능력이다(정혜인, 2010). 이는 아동에게 있어 학교뿐만 아니라 이후 사회에서 겪는 스트레스와 다양한 변화를 긍정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조경애, 2014).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은 안정된 성격을 가지고, 자신감이 강하며 학교나 사회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권진혁, 2015). 이러한 특성은 아동기에 중요한 또래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자아탄력성이 낮은 아동에게 미술치료, 놀이치료, 음악치료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들은 아동의 자아탄력성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해준다(백경미, 최외선, 2012; 유승은,

박부진, 2010; 이수성, 2014; 이일경, 2015; 이항숙, 최은영, 2013; 정기원, 2014; 허선윤, 이숙, 2010).

자아탄력성과 또래관계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은 원만한 적응력, 긍정적인 사회적 태도와 문제 해결 능력, 높은 심리적 안정감으로 또래관계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석주영, 박인전, 2009). 이는 아동이 원만한 또래관계를 형성하는 데 자아탄력성이 꼭 필요한 내적자원임을 알 수 있으며(나기은, 은혁기, 2014),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또래관계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음악은 이러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에 중요한 요인인 자아탄력성과 또래관계를 향상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음악은 언어적 표현 없이도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방법으로, 또래와의 상호작용과 교우관계의 향상에 있어 효과적인 방법이다(정현주, 김동민, 2010). 아동은 음악을 통해 즐거움과 성공적인 경험을 하고, 이로 인해 성취감과 만족감,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음악활동 안에서 그룹원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것은 아동에게 소속감을 높여주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한다(박은진, 2007).

노래는 음악과 언어의 결합체로써 다양한 삶의 사건과 희망, 기쁨, 슬픔, 두려움과 같은 감정표현을 가능하게 하고(Bruscia, 1998/2006), 노래 가사 내용에 감정이입, 투사하는 과정을 통해 아동 스스로가 자신의 내면 문제들을 확인하고 해결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Borczone, 1997). 이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을 자각하고 안전함을 느끼며, 자신의 문제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걱정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계기가 된다(정현주, 김동민, 2010). 이러한 노래의 효과성은 그룹 내에서 아동의 공통된 활동 참여를 통해 유대감, 소속감 등의 경험을 가능하게 하며, 또래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최병철 외, 2015). 이와 같은 노래의 장점을 치료적 요소로 활

용한 노래중심 음악치료는 음악심리치료의 접근방법 중 하나로, 치료의 접근방식과 노래를 적용하는 방법에 따라 노래 감상하기, 노래 부르기, 노래 대화하기, 노래 회상하기, 노래 가사 토의하기, 노래 즉흥연주, 노래 그림그리기, 노래 만들기 등으로 활용된다(정현주, 2005).

노래중심 음악치료는 여러 기법의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심리·정서적 문제와 다양한 특성을 가진 대상자들에 관해 연구되고 있다. 최애나(2012)와 최진영(2015)은 노래중심 음악치료가 다문화 가정 아동의 언어 발달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였고, 손정향(2015)은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최소림(2006)은 장애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과 불안 감소에 효과적이라고 하였으며, 이혜정(2013)은 방사선 치료를 받는 암환자들의 피로와 불안정도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입증하였다. 또한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 향상(이하나, 양은아, 2015), 아동의 정서지능 향상(박환영, 2013; 손현검, 곽현주, 2014), 새터민 아동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감소(정현정, 2009)에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기존 연구들에서 다양한 특성을 가진 대상들에 대한 노래중심 음악치료의 긍정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밝힌 바 있지만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정서·심리적 안정감과 긍정적인 사회성 발달을 위해 노래중심 음악치료를 적용한 연구(김지선, 2010; 박은진, 2007; 이민화, 2014)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노래중심 음악치료가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 2. 연구가설

본 연구의 목적은 노래중심 음악치료가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데 있으며,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1. 노래중심 음악치료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탄력성 향상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1-2. 노래중심 음악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에 비해 자아탄력성 점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할 것이다.

가설 2-1. 노래중심 음악치료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아동의 또래관계 향상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2-2. 노래중심 음악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에 비해 또래관계 점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할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저소득층 아동

#### 1) 저소득층 아동의 개념 및 현황

저소득층이란 최저 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며 국가로부터 최저 생활을 보장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 속하는 차상위 계층과 150% 이하인 차차상위 계층을 의미한다. 최저생계비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이며, 2015년도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는 월 1,668,329원이다(보건복지부, 2015).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2008년부터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맞물려 빈곤과 저소득층 가구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로 인해 가정경제에 실업률의 급증, 소득의 감소, 부채의 증가 등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

보건복지부(2012)의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85% 이상이 양부모 가정, 70% 이상이 정상적인 주거형태 속에서 생활하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정은 52.7%가 한부모 가정, 6.6%가 지하나 옥탑 등 열악한 주거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청소년 중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층은 7.8%, 상대빈곤층은 11.5%로 아동 8명 중 약 1명이 빈곤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빈곤은 우리 사회에 여러 문제를 동반한다. 가족 구성원 중 특히 아동이 경험하게 되는 물질적 자원의 부족, 부모의 부재로 인한 방임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노현미, 박인진, 2008).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의 '2015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저소득층 가정이 일반가정보다 학대에

더 노출되었으며, 저소득층 아동이 학대받는 비율은 정서적 학대 27.5%, 방  
임 15%, 신체적 학대 12.5%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가정 아동의 정서적  
학대가 17.5%, 방임이 5%, 신체적 학대가 7.5%로 나타난 것과 비교하여 볼  
때, 저소득층 아동의 학대 발생률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모들이  
가난의 원인을 자녀의 출생과 연결 지어 생각하거나 경제적 문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자녀에게 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이처럼 저소득층 아동은 부모의 저임금, 높은 실업률, 불안정한 고용  
형태 등과 같은 경제적인 요소의 어려움과 더불어 사회적·심리적 문제를 경  
험하며, 인지·정서 발달, 학교 적응 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다(문경숙, 김  
종백, 2010; 이현진, 이미옥, 2016).

## 2) 저소득층 아동의 심리적 특성

아동기는 가정에서 시작하여 학교, 사회에서 또래와 관계를 경험하게 되  
며, 아동이 사회에 적응하고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현진, 이미옥, 2006). 저소득층 아동은 부모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혼자 보  
내는 시간이 많아 가정에서 학습할 수 있는 사회적 기술 발달에 어려움이  
있다(이은희, 2012). 또한 가사와 취업, 자녀양육 등의 역할 과중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된 저소득층 가정 부모의 아동은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아동에 비해 소극적 성향, 열등감  
과 같은 부정적인 자아개념 형성으로 인한 심리·사회적 부적응의 문제를 가  
지게 된다(박량규, 강우선, 2006; 이현진, 이미옥, 2006). 경제 소득이 적은  
부모는 심리·정서적으로 불안을 느끼고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부적절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 부적응, 따돌림, 폭력, 낮은 자  
아개념과 함께 또래와의 갈등, 외로움, 우울감 등과 같은 정서적 영역이 가

장 심각한 문제로 언급된다(민하영, 권기남, 2004; 이해영, 2005). 이와 같이 빈곤가정에서 경험하는 아동의 부정적 경험은 경제적 영향보다 심리·정서적인 영향이 크며, 아동의 사회성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이현송, 2008).

보건복지부의 아동종합실태조사(2013)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의 스트레스 요인으로 숙제, 시험, 학업 등이 있으며, 저소득층 아동은 돈, 부모와의 갈등, 외모 등의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 가정 부모의 경제적인 활동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9세 이상 11세 이하의 아동 중 49.8%가 평일 방과 후에 3일 이상을 어른 없이 혼자 혹은 형제·자매와 함께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17.4%의 저소득층 아동은 방과 후에 거의 매일 혼자 집에 있으며, 8%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빈곤상태를 경험하는 등 아동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가 201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 아동의 빈곤으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을 시사한다.

이처럼 저소득층 아동은 부적절하고 취약한 주변 환경 속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가족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인 박탈감을 포함한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신미경, 정규진, 최애나, 2011). 이러한 저소득층 아동에게 다양한 사회복지의 발전과 적절하고 체계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아동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 2.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또래관계

### 1) 자아탄력성의 개념 및 특성

자아탄력성(Ego-resilience)이란 인간이 다양한 환경적 변화에 부딪혔을 때, 적절한 감정조절을 통하여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상황에 적응하고 대처하는 능력이며, 스트레스를 견뎌내는 저항능력을 의미하는 탄력성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된다(Block & Kremen, 1996). 이는 정서적인 안정감과 긍정적인 정서 수준을 유지하는 능력으로써 아동의 성장 과정에서 경험하는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김보라, 이규민, 2010).

Klohn(1996)은 자아탄력성의 구성요소에 낙천성, 자율성, 능동적인 활동성, 타인에 대한 공감, 원만한 대인관계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낙천성, 자율성, 능동적인 활동성은 아동에게 삶에 대한 자신감, 긍정적인 생각, 통제감 등을 느끼게 하며 아동의 적극적인 사회 활동을 유도한다. 또한 타인에 대한 공감으로 또래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한다고 하였다(윤현희, 홍창희, 이진환, 2001, 재인용). 이러한 특성들은 아동 발달에 있어서 긍정적인 보호요인이 되며 정상발달을 저해하는 환경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Daniel & Wassell, 2002/2008).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은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처능력, 타인에 대한 수용, 감정 조절 및 통제 등의 친사회적인 특성을 가져 심리·사회적으로 쉽게 적응할 수 있다(황순택, 구형모, 김지혜, 2001; Funder & Block, 1989; Strayer & Roberts, 1989). 반면에 자아탄력성이 낮은 아동은 주변의 상황을 스트레스로 지각하여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고, 상황적 요구에 충동적이고 일관성 없는 태도, 부정적 사고, 대인관계 등에 어려움을 느낀다(기민희, 김미숙, 2014).

저소득층 아동은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가족관계에서의 갈등, 심리적 압박, 경제적 위축감과 같은 부정적인 경험들을 겪음으로써 자아탄력성이 낮은 아동의 특성과 같이 쉽게 좌절하며,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보인다(김미정, 정계숙, 하은실, 2012). 이처럼 아동기의 중요한 발달과 심리·정서적 특성을 고려할 때, 자아탄력성은 아동에게 환경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데 중요하다.

## 2) 또래관계의 개념 및 특성

또래는 연령, 성숙 수준이 비슷한 아동이나 청소년을 말하며, 또래관계는 비슷한 나이의 아동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관계이다(이현진, 이미옥, 2006). 아동은 성장하면서 가족과는 다른 형태인 또래집단과 접촉하게 되는데 특히 초등학교 입학 후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는 아동의 생활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아동은 또래관계의 경험을 통해 또래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고, 자신을 새롭게 인식한다. 또한 융통성, 순응성, 사회적 능력 등을 발달시키며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소속감과 신뢰감 형성을 경험한다(이주리, 유안진, 1995). 아동기에 있어 또래는 영향력 있는 중요 타인으로, 적절한 또래관계를 형성한 아동은 자아존중감, 학교 적응력, 학습에 대한 이해력이 높고, 자신과 타인에 대한 수용으로 안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배영옥, 2011; 조동윤, 김광웅, 2007). 이처럼 아동기의 원만한 또래관계는 긍정적인, 바람직한 사회성 발달에 도움이 되며, 아동의 행복과 건강한 인성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된다(김호지, 2010).

아동의 또래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부모와의 상호작용으로 부모가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행동이 자녀의 또래 유능성

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희진, 1998; 홍성희, 김경희, 2005). 그러나 Hoge와 McCarthy(1984)는 저소득층 아동의 부모가 경제적 활동에 몰두함으로써 자녀에게 양육을 충분히 하지 못한다는 심리적 죄책감을 갖게 되어 오히려 자녀와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일방적인 훈계나 자녀의 요구를 무시하는 등 갈등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이러한 부모의 양육방식은 아동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또래관계나 학교와 같은 사회 환경에서 부적응을 유발할 수 있다(김서안, 권영란, 2016, 재인용).

성자영(2011)은 부모로부터 적절한 욕구의 조절과 타협을 배우지 못한 저소득층 아동은 일반아동보다 또래집단 속에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자존감이 낮으며, 공격적 행동을 보인다고 하였다. 부적절한 부모의 양육방식으로 인해 아동은 사회적인 대처능력과 자신의 감정표현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이후 아동이 또래와 관계를 맺는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난다(남현우, 이지현, 1999; 홍성희, 김경희, 2005).

부모의 빈곤으로 인해 저소득층 아동이 경험하는 경제적 어려움은 아동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심리적 성장을 제한하고, 아동의 행동과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김경희, 황혜정, 1998). 아동은 취약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또래와 빈부 격차, 열등감, 우울감 등을 경험하며 정서적 위축으로 자아 성찰과 감정을 언어화하고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전순영, 김동연, 2001). 아동이 느끼는 좌절감과 열등감은 또래관계에서 따돌림, 공격적인 행동 등의 또 다른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 아동은 감정표현의 어려움, 자신감 결여와 같은 심리·사회적인 문제로 인해 사회성이 부족하여 타인과의 새로운 경험을 피하고, 또래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구자운, 2009).

이처럼 아동의 또래관계는 사회성 발달, 인성발달, 정서적·심리적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아동기의 긍정적인 또래관계 경험은 아동이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자아개념 형성, 사회적 기술 습득 등에 영

향을 주는 중요 요소임을 알 수 있다(문지연, 2006; 배영옥, 2011).

### 3.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노래중심 음악치료

#### 1)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음악치료

저소득층 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영유아 시기에서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건강, 문제행동, 학업 전반에 걸쳐 빈곤, 부적절한 양육, 학교 부적응 등과 같은 많은 문제를 보인다(민하영, 김경화, 2007). 또한 낮은 자아존중감과 사회 적응력, 품행장애, 우울증과 같은 심리·정서적 문제로 사회기술 능력, 또래관계, 자아형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사회성과 또래관계 형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다(김수희, 2009). 양지은(2007)은 이러한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을 위한 중재로 음악을 사용하여 자기표현, 자기인식, 타인과의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사회적 기술의 문제를 다룰 수 있다고 하였다.

저소득층 아동에게 있어 그룹 안에서 공유하는 음악적 경험은 타인과 친밀감을 느끼도록 유도하고, 적절한 행동의 변화와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음악활동을 통한 성공경험은 아동이 겪을 수 있는 실수나 좌절감을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감정조절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어 효과적인 치료도구로 사용된다. 또한 생활 속에서 억압된 부정적인 감정이나 경험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심리적 안정에 기여한다(신윤희, 2007; 최신형, 2007).

강해선(2013)은 음악을 매개체로 하는 음악치료가 저소득층 아동의 심리·정서적, 사회적, 학습 기술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하였다. 김혜정과 양은아(2013)는 기악합주활동 중심의 음악치료가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또래관계 기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

고하였다. 이는 음악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호교류가 그룹 안에서 자신과 타인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해주고, 또래와의 협동을 통해 느끼는 성공적인 음악 경험이 사회적 기술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음악치료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긍정적인 자아형성, 사회성 향상과 같은 사회·심리·정서적 발달에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또래관계 향상에 긍정적 효과를 일으키는 데 중요한 중재 역할이 가능하다.

## 2) 노래중심 음악치료의 치료적 가치와 의미

노래는 언어와 음악의 결합으로, 인지영역과 감정영역을 동시에 자극하고 개인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도록 도우며, 감정과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다(정현주, 2005). Baker와 Wigram(2005/2008)은 노래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감정을 노래에 투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노래를 만들거나 함께 부르고 연주하는 활동은 내담자에게 즐거움, 성취감 등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그룹 안에서 긍정적인 교류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Colwell, Davis & Schroeder, 2005; Silverman, 2003).

최미환(2006)은 노래가 갖는 치료적 기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노래는 언어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다양한 감정들을 반영해주어 외부에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주고, 타인의 감정을 수용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둘째, 노래에는 삶의 다양하고 보편적인 부분들이 담겨 있어 대상자가 삶의 많은 주제들과 연결된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노래는 대상자가 자신의 내면을 깊이 탐색하고 관찰할 수 있도록 편안한 구조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노래는 대상자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감상과 작곡 등 다양한 작업 형태와 수준의 활동으로 융통성 있

게 적용하여 개별화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이와 같은 노래의 다양한 기능을 치료의 주된 자원으로 사용하는 노래중심 음악치료는 음악심리치료의 접근방법 중 하나로, 치료의 접근방식과 노래를 적용하는 방법에 따라 노래 감상하기, 노래 부르기, 노래 대화하기, 노래 회상하기, 노래 가사 토의하기, 노래 즉흥연주, 노래 그림그리기, 노래 만들기 등으로 활용된다(정현주, 2005). 본 연구에서는 노래중심 음악치료 기법 중에서 노래 감상하기, 노래 부르기, 노래 대화하기, 노래 가사 토의하기, 노래 만들기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에 대한 정의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

#### (1) 노래 감상하기

노래 감상은 내담자나 치료사가 선곡한 노래를 감상하거나 함께 부른 후 내담자의 느낌이나 생각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투사적 감상과 의식적 감상 방법이 사용된다. 투사적 감상은 노래를 통해 깨닫지 못했던 자신의 문제를 확인하거나 수용하도록 돕는다. 의식적 감상은 노래의 주제나 음악적 요소에 대한 대화를 통해 내담자에게 친근하게 접근하고, 타인에 대한 공감의 기회를 준다(최미환, 2006). 이러한 감상 기법은 노래 가사에 대한 감정이입, 동일시, 투사와 같은 심리적인 작용으로, 내담자의 정서, 갈등, 문제 등을 발견할 수 있으며, 내담자의 자아 성찰과 자기표현의 경험을 제공하고, 집중력 향상을 돕는다(최소림, 2006).

#### (2) 노래 부르기

노래 부르기는 목소리만을 사용하여 음색, 선율, 가사 등을 직접 표현하는 방법으로, 언어로 표현하는 것보다 풍부한 감정표현을 가능하게 한다(정현

주, 2005; 최소림, 2006). Austin(2008)은 노래 부르기가 고통, 분노, 두려움을 해소하며 기쁨을 나누고 표현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또한 그룹원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것은 소속감과 사회성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교류의 동기를 마련해주며 그룹의 응집력과 결속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임현정, 2009). 따라서 아동에게 있어 자신과 비슷한 환경에 있는 그룹원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듣는 것은 긍정적인 가치관을 형성하고, 상호작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강진령, 2011; 양지은, 2007).

### (3) 노래 대화하기

노래 대화하기는 치료사가 준비한 노래 감상 후, 느껴지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치료사 및 그룹원과 함께 대화하는 방법으로, 노래 가사를 통해 과거 회상, 자신의 느낌, 감정들을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정현주, 2005). 박수정(2003)은 노래 대화하기 활동이 자신을 표현하게 하며, 언어적 표현과 더불어 노래를 통한 음악적 표현으로 자아인식 및 자신감 향상,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였다.

### (4) 노래 가사 토의하기

노래 가사 토의하기는 노래를 촉매제로 사용하여 치료 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는 방법이다. 내담자는 그룹원이나 치료사가 선곡한 노래를 감상하거나 함께 부른 후 가사의 의미를 분석하고, 자신의 삶과 연관성을 찾을 수 있는 계기를 갖는다(정용라, 2015). 이는 노래에 대한 생각을 분석하고, 자신의 감정을 노래 가사에 투사하여 내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준다(박환영, 2013).

노래에서 가사는 사고와 감정들을 강화시키고 생각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정현주, 2005). Bailey(1984)는 가사에 내포된 의미가 정서적, 문화적, 사회적 관념과 가치관의 깨달음을 주고 이를 타인과 공유함으로써 안전한 환경 안에서 개인의 생각이나 감정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도록 돕는다고 하였다(최소림, 2006, 재인용). 또한 그룹원과의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타인의 과거 경험들을 긍정적으로 지지하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대한 인정과 타당성을 제공한다(현수경, 2000). 이처럼 노래 가사 토의하기는 노래 가사와 자신을 동일시하여 저소득층 아동의 심리적 이슈를 자연스럽게 솔직하게 반영할 수 있고(박수정, 2003), 그룹의 유대감을 향상시키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 (5) 노래 만들기

노래 만들기는 원곡의 부분 또는 전체를 내담자가 직접 가사를 바꾸거나 새로운 노래를 만드는 것으로(정현주, 2005), 본 연구에서는 노랫말 채우기와 개사하기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노랫말 채우기는 기존의 노래에 치료사가 의도적으로 가사의 빈칸을 남겨놓아 내담자가 채우게 하는 방법으로, 치료에서 심각한 이슈를 다루기에 아직 적절하지 않은 상태일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최미환, 2006). 내담자는 빈칸에 단어 또는 짧은 문장을 넣어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가사를 만듦으로써 현재의 심리 상태를 노래로 표현할 수 있다.

치료사가 구조화된 음악적 접근 안에서 내담자의 감정을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표현하도록 중재할 때 노랫말 채우기보다 개사하기를 사용한다(이다운, 2010). 개사하기는 단어 또는 짧은 문장으로 표현하는 노랫말 채우기에 비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비교적 긴 문장으로 자유롭게 바꾸는 방법

이다. 내담자는 직접 가사를 만드는 활동을 통해 자신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내면을 성찰할 수 있어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장승희, 2007). 특히 그룹 음악치료의 경우 그룹원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해 지지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 활동의 참여를 촉진시킨다(Baker & Wigram, 2005/2008).

이처럼 노랫말 채우기와 개사하기를 포함한 노래 만들기의 과정은 내담자가 현재 상태에 대한 깊은 탐구를 가능하게 하여 내담자가 자신을 표현하고, 내면을 성찰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문지영, 2007). 또한 그룹원의 공감과 지지를 통해 긍정적인 관계형성을 가능하게 한다(McFerran, 2010/2012).

### 3)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노래중심 음악치료

#### (1)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음악치료

저소득층 아동은 빈곤으로 인한 정서적 불안과 스트레스로 인해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이 낮게 형성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대인관계에서의 신뢰감, 일에 대한 의욕 등이 저하된다(최외선, 전미향, 1996).

음악은 아동의 억압되어 있는 부정적 정서와 내면을 표출하게 하고, 음악적 경험에서 느끼는 성취감, 만족감, 즐거움 등을 통해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아동의 자아탄력성 향상에 있어 음악적 경험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사고를 전환시키고, 자아를 강화시키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며, 부정적 감정을 표출하고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여 감정의 정화를 돕는다(여정윤, 2012; 조경애, 2014).

이러한 음악과 노래의 치료적 요소를 사용하여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탄력

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 음악치료 선행연구로, 이수성(2014)은 노래 부르기, 송 라이팅, 노랫말 채우기 활동을 통한 그룹음악치료가 시설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성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일경(2015)은 노래 부르기, 노래 만들기 활동 등의 음악치료와 놀이치료, 미술치료를 통합한 통합적 예술치료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킨다고 하였다. 김경숙과 정광조(2015)는 음악 감상, 노래 부르기 등의 활동을 포함한 음악치료와 무용동작치료, 미술치료를 통합한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이 시설보호아동의 자아탄력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처럼 노래를 포함한 예술 매체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과 다양한 환경에서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아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2) 저소득층 아동의 또래관계와 음악치료

저소득층 아동 중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 또래집단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 소속감, 유대감 등의 애착관계가 형성되고, 경제적 환경과 활동범위가 비슷하여 아동이 느끼는 또래관계의 의미가 더 크다(김희정, 정다운, 2011; 성자영, 2011). 이러한 또래관계는 아동의 사회성 발달과 더불어 정서, 인지, 행동 발달에 중요하다. 특히 부모나 성인과의 관계에서는 이루기 어려운 또래관계는 집단 안에서의 음악적 경험을 통해 아동에게 자기표현과 자아성찰, 즐거움 등을 제공하고, 음악을 통한 자기표현은 그룹 안에서 사회적 교류로, 타인과의 공통된 경험은 그룹원들 간의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증진시킨다(문지연, 2006; 조경애, 2014; 한지현, 2005).

이영나(2007)는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개입방법 중 하나로 음악치료를 보고하였다. 특히 그룹 음악치료는 음악적 환경 안에

서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또래관계에서 필요한 기술을 연습하고 경험할 수 있으며(허혜진, 2010), 협동 작업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이룸으로써 성취감과 자신감을 향상시킨다. 이러한 긍정적인 경험은 저소득층 아동이 나타내는 공격성, 심리·정서적 불안 등을 감소시키고 자기인식, 자기표현, 사회적 기술 등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주어 또래관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조은희, 2009).

문지연(2006)은 송 라이팅, 노래부르기, 가사 토의 등의 활동을 통한 음악 치료가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 향상에 효과적임을 입증하였다. 오나영(2015)은 노래 부르기, 노래 가사 토의, 음악 감상 등의 활동을 통한 그룹음악치료가 농촌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의 정서지능과 또래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고하였고, 조은희(2009)는 노래 부르기, 노래 개사하기, 플루트 앙상블 등의 활동을 통한 그룹음악치료가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협동심 및 성취감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교류 기술 능력과 또래관계 증진에 효과적임을 보고하였다. 이처럼 노래중심 음악치료의 다양한 활동은 저소득층 아동이 또래관계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 자신감 향상 등과 같은 사회·정서적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다.

### (3)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노래중심 음악치료

저소득층 아동은 부모의 맞벌이나 이혼 등의 이유로 인한 불안감,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고, 타인에게 일반화시키는 오류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문제로 인해 대인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박용순, 1997).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대한 타인의 시선 의식, 열등감, 수치심 등의 감정으로 인해 심리적 위축, 타인에 대한 증오, 부정적인 자아 등을

형성하게 된다(민하영, 권기남, 1994).

노래는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나 억압된 정서를 가사나 멜로디를 통해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음악의 치료적 경험은 이러한 아동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감소시켜 정서적인 안정과 올바른 자아를 형성시킬 수 있고, 그룹 음악치료를 통해 그룹원들의 긍정적인 수용과 지지를 느낄 수 있어 자기표현과 상호교류의 기회를 제공한다(김선정, 김근식, 2015).

저소득층 아동을 위해 노래를 사용한 음악치료는 사회, 정서, 인지, 언어 영역 등에서 다양하게 연구되어지고 있다. 그 중 사회적, 정서적 영역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김수희(2009)는 성취감 경험, 자신감 향상,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자기표현을 목표로 구성된 가창 프로그램이 아동의 위축행동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박종희와 박성옥(2013)은 음악 감상, 노래 부르기 등의 방법을 활용한 그룹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아동에게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하고 자신감을 주어 자아존중감 향상과 스트레스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채은혜(2012)는 노래 부르기, 송 라이팅, 음악 감상 등의 활동을 통한 그룹 음악치료가 아동의 정서지능과 자기효능감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최애나(2007)는 노래 부르기, 노랫말 만들기 등을 활용한 음악치료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적 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으며, 특히 사교성과 개방성에 효과적이었다. 김선정과 김근식(2015)은 초등학교 2, 3학년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노래 부르기, 노래 개사하기 등의 그룹 음악활동이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을 향상시킨다고 하였다.

이 밖에도 노래를 사용한 음악치료가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및 감성지능 향상에 효과적임을 입증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신윤희, 2007; 임윤영, 2013). 이처럼 노래는 저소득층 아동의 자기효능감, 자신감, 사회성 등과 같은 정서·심리·사회적 발달에 효과적인 치료적 도구이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인천의 S구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동들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은 사회복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선별된 아동 16명(남자 10명, 여자 6명)으로, 실험집단 8명(남자 6명, 여자 2명)과 통제집단 8명(남자 4명, 여자 4명)으로 무선 배치하였다.

#### 2. 측정도구

##### 1) 자아탄력성 척도(Ego-Resiliency Scale; ERS)

자아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Higgins(1983)와 Block과 Kremen(1996)이 개발한 것으로, 박은희(1996)가 번안하고 박상희(2009)가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대인관계, 활력성, 감정통제, 호기심, 낙관성의 5개 하위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영역은 8문항씩 구성되어 총 40문항이다. 모든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 2점(그렇지 않다), 3점(보통이다), 4점(그렇다), 5점(매우 그렇다)의 리커트식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부정적인 내용의 문항(3, 23, 25, 28, 30, 31, 35, 37, 40)은 역으로 환산하여 채점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박상희(2009)의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86이다.

<표 III-1> 자아탄력성 척도의 하위요인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	Cronbach's $\alpha$
대인관계	1, 6, 11, 16, 21, 26, 31*, 36	.67
활력성	2, 7, 12, 17, 22, 27, 32, 37*	.68
감정통제	3*, 8, 13, 18, 23*, 28*, 33, 38	.61
호기심	4, 9, 14, 19, 24, 29, 34, 39	.61
낙관성	5, 10, 15, 20, 25*, 30*, 35*, 40*	.61

\* 역채점 문항임

## 2) 또래관계 척도(Network of Relationships Inventory; NRI)

또래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Furman과 Burhmester(1985)가 개발하고, 박인숙과 이현림(2008)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사회적지지, 처벌주도권, 친밀, 우의, 대립의 5개 영역으로 전체 3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 2점(조금 그렇지 않다), 3점(보통이다), 4점(조금 그렇다), 5점(매우 그렇다)의 리커트식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부정문으로 진술된 문항(2, 8, 13, 19, 21, 24, 30, 32)은 역으로 채점한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요인의 또래관계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박인숙(2008)의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83이다.

<표 III-2> 또래관계 척도의 하위요인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	Cronbach's $\alpha$
사회적지지	3, 4, 6, 7, 9, 11, 14, 15, 17, 18, 20, 22, 25, 26, 29, 31, 33	.89
차별주도권	8*, 19*, 21*, 30*, 32*	.81
친밀	5, 10, 16, 27, 28	.79
우의	1, 12, 23	.85
대립	2*, 13*, 24*	.82

\* 역채점 문항임

### 3. 연구설계 및 절차

#### 1) 연구설계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노래중심 음악치료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 간의 처치 효과를 알아보는 사전-사후검사 통제집단 설계를 구성하였다. 종속 변인은 자아탄력성과 또래관계이며 독립변인은 노래중심 음악치료를 적용하였다. 이를 도식화 하면 다음의 <표III-3>과 같다.

<표 III-3> 사전-사후검사 통제집단 설계 구성

	사전검사	처치	사후검사
실험집단	O1	X	O2
통제집단	O3		O4

X: 노래중심 음악치료 프로그램

O1, O3: 자아탄력성, 또래관계 사전검사

O2, O4: 자아탄력성, 또래관계 사후검사

## 2) 연구절차

노래중심 음악치료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본 연구에서 실험집단은 자아탄력성 및 또래관계 향상을 위한 음악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통제집단은 사전, 사후 검사만 진행하고 음악치료 프로그램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프로그램은 인천의 S구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에서 저소득층 아동 8명을 대상으로 2016년 2월 29일부터 3월 30일까지 회기 당 60분, 주 2회로 총 10회기에 걸쳐 진행되었다. 사전검사는 음악치료 프로그램 개입 1주 전, 사후검사는 마지막 회기 종료 직후에 동일하게 측정하였다.

## 4. 음악치료 프로그램 구성

본 연구는 노래중심 음악치료가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또래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프로그램은 자아탄력성의 5가지 하위요인인 대인관계, 활력성, 감정통제, 호기심, 낙관성과 또래관계의 5가지 하위요인인 사회적지지, 처벌주도권, 친밀, 우의, 대립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노래중심 음악치료 프로그램에서 매 회기 반복되는 인사노래와 마침노래는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도록 간단한 멜로디와 가사로, 이름을 넣어 서로 인사할 수 있게 하여 그룹원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위밍업 활동으로는 긴장된 신체를 이완하고, 활동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음악에 맞춰 동작활동을 하거나 악기 연주 등을 하였다. 중심 활동에는 노래 감상, 노래 부르기, 노래 대화하기, 노래 가사 토의하기, 노래 만들기 기법을 활용하여 노래중심 음악치료의 다양한 음악적 활동들을 제공하였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활동을 통해서 각자의 경험과 느낌을 그룹원들

과 함께 나누고, 공감함으로써 지지와 유대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구조로 매 회기의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아동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 1) 프로그램 회기구성

프로그램의 각 회기는 60분으로 구성되었으며, 도입 10분, 중심활동 40분, 마무리 활동 10분으로 구성하였다.

<표 III-4> 노래중심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회기 구성

구성	시간	활동내용
도입	10분	인사노래, 위밍업 활동
중심활동	40분	노래중심 음악치료 활동 (노래 감상, 노래 부르기, 노래 대화하기, 노래 가사 토의하기, 노래 만들기)
마무리	10분	음악활동에 대한 경험, 느낌 나누기, 마침노래

### 2) 노래중심 음악치료 프로그램 구성

프로그램은 회기 당 60분씩, 총 10회기로 구성하여 진행되었으며, 프로그램에서 사용한 노래중심 음악치료 활동은 노래 감상, 노래 부르기, 노래 대화하기, 노래 가사 토의하기, 노래 만들기 기법을 활용하였다. 각 회기의 프로그램은 자아탄력성과 또래관계의 하위요인을 기반으로 구성하였고, 프로그램의 단계는 도입단계(1-2회기), 작업단계(3-8회기), 마무리단계(9-10회기)로 총 3단계로 진행하였다.

도입단계에서는 친밀감 및 관계형성을 목표로 하여 치료사와 그룹원들간의 친밀감을 형성하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룹원들이 선

호하는 곡을 선곡하여 감상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또한 신체활동, 다양한 악기 연주로 자기표현의 기회를 주어 음악활동 참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였다. 작업단계에서는 감정조절 및 긍정적 상호작용, 공감대 형성을 목표로 하였다. 노래 감상, 노래 부르기, 노래 대화하기, 노래 가사 토의하기, 노래 만들기의 다양한 노래중심 음악치료 활동을 통해 자기 인식과 감정조절, 그룹원과의 언어적·음악적 상호작용으로 음악적 공감과 지지를 경험하도록 하였다. 마무리단계에서는 자신감, 자아존중감 향상 및 유대감 향상을 목표로 하였다. 음악활동을 통해 경험한 자신에 대한 신뢰, 자신감, 미래에 대한 희망, 그룹원과의 상호작용 등을 통해 그룹 내에서의 유대감, 친밀감과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도록 하였다. 이에 대한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단계별 목표는 <표Ⅲ-5>와 같다.

<표 Ⅲ-5>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단계별 목표

단계	회기	자아탄력성 하위영역	또래관계 하위영역	목표
도입	1-2	대인관계, 호기심, 낙관성	친밀	친밀감 향상 및 관계 형성
작업	3-8	활력성, 감정통제	차별주도권, 사회적지지, 우의, 대립	감정조절 및 긍정적 상호작용, 공감대 형성
마무리	9-10	낙관성	사회적지지	자신감, 자아존중감 향상 및 유대감 형성

매 회기별 프로그램 구성을 살펴보면, 1회기는 인사노래와 마침노래를 익히고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와 노래 소개, 악기를 탐색하고 함께 연주하였다. 내담자가 처음으로 듣고, 부르는 인사노래와 마침노래를 통해 내담자에게 새로움에 대한 호기심을 느끼도록 하였고, 치료사와 그룹원의 관계형성과

친밀감이 형성되도록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자아탄력성의 하위영역인 대인관계, 호기심과 또래관계의 하위영역인 친밀감을 향상시키는 데 의의를 두었다.

2회기는 <Mo' better blues> 음악에 노래 만들기 활동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인식과 강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자아탄력성의 하위영역인 낙관성을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이 음악은 가사가 없는 연주곡으로 반복되는 코드 진행과 5음 음계가 멜로디로 연주되는 구조이다. 단순한 음악과 가사로 '나의 강점'을 비교적 수월하게 다섯 글자의 가사로 표현할 수 있어 내담자는 노래 만들기에 대한 접근을 쉽게 느낄 수 있고, 음악적 경험을 성공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성공적인 음악적 경험은 내담자에게 기대감, 성취감, 자신감 등을 향상시킬 수 있었고, 익숙한 노래의 사용으로 내담자에게 안정감과 흥미를 줄 수 있었다. 노래와 함께 5음 음계로 이루어진 터치벨을 연주하여 음악적 강화물로 사용하였다.

3회기는 성시경의 <제주도 푸른밤> 노래를 감상하고 노래 대화하기 활동을 통해 자신이 느낀 생각이나 감정을 이야기 나누었다. 자신이 가고 싶은 여행지에 대해 이야기 하고, 가사로 만들어 노래함으로써 자기표현과 더불어 그룹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타인인식의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내담자가 자신의 생각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타인의 의견과 생각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였고, 또래관계의 하위영역인 처벌주도권에 의의를 두었다. 또한 그룹원의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서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자아탄력성의 하위 영역인 활력성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데 의의를 두었다.

4회기는 유재석, 이적의 <말하는대로> 노래 감상 후, 가사를 토의하고 느껴지는 다양한 감정들을 개사하여 노래를 불렀다. 자신이 겪은 어려움에 대한 경험과 느꼈던 감정들을 성찰하고, 음악 안에서 표출할 수 있도록 하여

힘든 상황에서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자아탄력성의 하위영역인 낙관성을 증진시킬 수 있었고, 그룹원들이 함께 후렴부분을 노래하여 긍정적인 공감과 지지를 느끼도록 하였다.

5회기는 싸이의 <챔피언> 노래를 사용하여 내담자와 그룹원들이 번갈아 노래할 수 있는 후렴의 구조를 통해 그룹원들간의 상호작용을 유도할 수 있었다. 노래의 가사 중 ‘챔피언’을 수식하는 부분에 자신과 그룹원에 대한 칭찬으로 노랫말을 채우고 노래하여 내담자가 그룹원들에게 인정받고 지지받는 긍정적 상호작용을 경험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또래관계의 하위영역인 사회적지지를 느끼도록 하였다.

6회기는 시크릿의 <별빛달빛> 노래 감상 후 나에게 소중한 사람과 그 이유를 이야기 나누고, 후렴의 가사 ‘너’는 소중한 대상으로, ‘별빛, 달빛, 하늘, 바다’는 내담자가 소중한 대상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것으로 노랫말 채우기를 하였다. 이는 자신에게 소중한 대상과 이유를 그룹원들과 이야기하고 함께 노래함으로써 유대감 및 친밀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 사회성이 향상되도록 하였다. 내담자는 또래관계의 하위요인 중 가족, 친구, 교사와 같은 사회적지지자를 통해 대인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인 사회적지지를 긍정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7회기는 사회성과 또래관계 향상을 위해 버스커버스커의 <꽃송이가> 노래 감상 후, 가사 토의를 하였다. 원곡의 가사 내용이 좋아하는 사람과의 추억을 회상하는 것으로, 내담자는 친구와의 추억을 회상하고 자신이 친한 친구와 하고 싶은 일로 개사하고, 노래를 불렀다. 이를 통해 친구의 소중함과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고, 또래관계의 하위영역인 우의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

8회기는 자아탄력성의 하위영역인 감정통제와 또래관계의 하위영역인 대립에 대한 단계로 자우림의 <일탈> 노래 감상 후, 노래에 대한 느낌을 이

야기 나누었다. 노래의 후렴 멜로디가 반복되는 구조로, 내담자가 쉽고 편안하게 부를 수 있어 노래 만들기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후렴부분의 ‘( )때, ( )를’에서 첫 번째 괄호는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두 번째 괄호는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스스로 통제하고 긍정적으로 대처 하여 행동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빈칸을 채워 노래를 만들어 불렀다. 타인과의 대립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이를 위한 긍정적인 해결 방안을 가사로 만들어 노래함으로써 부정적인 내적 감정을 표출할 수 있고, 타인과의 긍정적 상호작용과 감정조절 및 통제 능력이 향상되도록 하였다.

9회기는 자아탄력성의 하위영역인 호기심과 낙관성을 위한 단계로 미래에 대한 희망과 자아존중감 및 자신감 향상을 목표로 하였다. 이한철의 <슈퍼스타> 노래 감상 후 노래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고, 연구자가 주제 ‘꿈’으로 개사한 가사 ‘들어봐 나의 꿈은 (꿈) 이걸 (몇 살) 때의 꿈 (꿈을 위한 노력)을 한다면 나는 슈퍼스타’로 괄호 안에 노랫말 채우기 활동으로 1절을 만들었다. 2절은 ‘꿈’에 대해 나누었던 이야기를 통해 느꼈던 생각이나 감정을 자유롭게 개사하여 노래를 불렀다. 이를 통해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아존중감을 느낄 수 있어 낙관성이 증진되도록 하였다. 후렴부분은 모두 함께 노래를 불러주어 그룹 내의 긍정적인 지지와 유대감을 형성하도록 하였다.

10회기는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 나> 노래 감상 후, 가사를 토의하였다.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 내가 힘이 되어주고 싶은 사람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힘이 들 땐 ( )’의 괄호 안에 노랫말 채우기 활동을 통해 힘든 상황에서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용기를 느끼도록 하여 자아탄력성의 하위영역인 낙관성을 증진시켰다. 후렴 가사의 ‘나는 항상 혼자가 아니야’ 부분에서 ‘나’를 그룹원의 이름을 넣어 노래하여 ‘혼자가 아닌 우리’ 라는 또래와의 긍정적 유대감과 상호작용의 경험을 통해 그룹원들이 자신을 지지해

주는 사람으로 느낄 수 있어 또래관계의 하위영역인 사회적지지를 느끼도록 하였다.

지금까지 했던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거나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활동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수고했어 오늘도’ 노래의 노래 가사 중 ‘오늘도’에 그룹원들의 이름을 넣어 노래를 불렀다. 가사 ‘오늘도’를 ‘그룹원의 이름’으로 개사하여 부름으로써 자기 자신과 그룹원 간에 소속감, 성취감이 향상되도록 하였다. 노래중심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활동내용 및 치료적 근거를 도식화하면 <표 III-6>과 같다.

<표 III-6> 매 회기별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구성

단계	회기	목표	활동내용	치료적 근거
도입	1	관계 형성 & 친밀감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소개, 좋아하는 가수 소개, 즐겨 듣는 노래 소개 및 감상하기</li> <li>- 악기 탐색 후, 자신이 원하는 악기 선택하여 연주하기</li> <li>- 세션의 시작에 부름 인사 노래와 마침노래 익히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이 선호하는 곡을 소개하고, 함께 들음으로써 그룹 내에서 소속감과 정서적 만족감을 얻을 수 있으며, 치료사와 그룹원들과 관계형성을 가능하게 한다(서승미, 2005).</li> <li>- 매 회기 반복되는 인사와 마침노래를 통해 그룹원들은 세션의 구조를 인식하고 자신의 이름을 넣어 부름으로써 치료사와 그룹원들간의 친밀감과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도모한다.</li> </ul>
	2	자기 인식 & 강점 찾기	<p>&lt;Mo' better blues&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래 감상 후, 느낀점을 이야기 나누기</li> <li>- 나의 강점을 다섯 글자의 가사로 만들어 노래 부르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주곡 &lt;Mo' better blues&gt;는 5음 음계를 사용한 멜로디와 단순한 코드 반복진행으로 이루어진 음악적 구조로, 5음 음계에 다섯 글자의 가사로 만들 수 있어 내담자는 어려움이나 두려움 없이 쉽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다.</li> <li>- 가사를 만드는 과정과 완성된 가사를 통해 내담자는 자신에 대한 성찰과 자신의 현재 모습을 인식할</li> </ul>

			<p>수 있다(McFerran, 2010/20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점을 찾는 것은 내담자가 삶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돕는다(김진영, 고영진, 2009).</li> </ul>
작업	3	<p>자기 표현 &amp; 타인 인식</p> <p>성시경 &lt;제주도 푸른 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악 감상 후, 노래에 대한 느낌 대화하기</li> <li>- 가고 싶은 여행지와 이유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고, 가사 만들어 노래 부르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료사가 제시한 노래에 포함된 장소와 이에 대한 설명의 가사내용은 내담자 자신의 여행경험과 가고 싶은 곳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리고 구체화 할 수 있도록 돕는다.</li> <li>- 그룹원들과 가고 싶은 여행지에 대해 이야기 나눔으로써 자기표현과 타인의 생각이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서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한다.</li> </ul>
	4	<p>자신감 향상 &amp; 공감하기</p> <p>유재석, 이적 &lt;말하는 대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래 감상 후, 가사를 토의하고, 자신이 어려움을 느꼈던 상황과 느꼈던 감정들로 개사하기. 후렴 부분은 다 같이 노래 부르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말하듯이 부르는 노래의 도입부분 멜로디와 리듬은 내담자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한다.</li> <li>- 그룹원들이 불러주는 후렴의 긍정적인 가사는 내담자에게 공감과 지지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li> </ul>
	5	<p>사회성 향상 ① (긍정적 상호작용)</p> <p>싸이 &lt;챔피언&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래의 가사를 자신과 그룹원에게 칭찬해 주고 싶은 내용으로 노랫말 채워 부르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래의 빠른 템포와 긍정적인 가사는 경쾌하고 신나는 분위기를 느끼게 하고, 내담자에게 즐거움과 흥미를 제공한다.</li> <li>- 내담자와 그룹원들이 번갈아 노래할 수 있는 후렴의 구조는 후창자의 즉각적 반응으로 선창자에게 음악적 지지를 경험하도록 하며 그룹원들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유도한다.</li> <li>- 자신과 그룹원의 강점을 찾는 과정은 긍정적인 자아 탐색과 지지, 사회성 향상을 도모한다(임윤영, 2013).</li> </ul>

6	사회적 향상 ② (공감대 형성)	시크릿 <별빛달빛> - 노래 감상 후 가사토의하 기 - 나에게 소중한 사람과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후렴 가사에 노랫말 채워 부르 기	- 이 노래에서 반복되는 후렴 부분의 리듬은 소중한 사람을 은유적인 가 사에 투사하고, 강조하여 표현할 수 있어 더욱 전달력 있게 느낄 수 있 도록 한다(윤다솔, 2016). - 공통된 주제 안에서 내담자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함으로써 그룹 내에 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사회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 다(주빛나, 2014).
7	사회적 향상 ③ (또래 관계 향상)	비스키비스키 <꽃송이가> - 노래 감상 후, 가사 토의 하기 - 친구와 하고 싶은 일로 개 사하여 노래 부르기	- 좋아하는 사람과의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노래 가사의 내용은 내담 자가 자신의 경험을 노래에 투사하 여 친구와 하고 싶은 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또래관 계를 향상시킬 수 있다. - 음악활동 안에서 내담자는 사회적 행동을 나타내며, 노래는 내담자의 내적 욕구를 반영해줄 수 있어 정 서적 안정감과 균형감, 사회적 향상 을 도모한다(정현주, 2011).
8	부정적 감정 통제 & 감정 조절	자우림 <일탈> - 노래 감상 후, 노래 대화 하기 - 친구와 싸웠을 때의 감정 과 긍정적인 대처 행동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개사 하여 노래 부르기	- 노래의 후렴에서 빠르고 경쾌하게 변화되는 템포를 통해 내담자는 역 동성을 경험할 수 있으며, 역동을 통해 얻는 안정감은 활동 안에서 적극적인 자기표현을 가능하게 한 다. - 내담자는 노래 부르기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 자 기표현의 기회와 감정조절 및 부정 적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김지연, 2005).

마 무 리	9	미래에 대한 희망 & 자아 존중감 향상	이한철 <슈퍼스타> - 노래 감상 후, 노래 대화 하기 -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이 이야기 나누고, 노래 만들어 부르기	- 후렴 가사에서 ‘괜찮아 잘 될거야’ 라고 반복되는 긍정적인 가사는 내 담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내담자 는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느낄 수 있다. - 꿈과 소망을 주제로 하여 개사한 가사와 긍정적인 가사의 노래는 위 료를 주며 각자의 소망에 대해 생 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정현주, 김동민, 2010). - 성공적인 음악적 경험을 통해 얻은 만족감과 성취감은 내담자의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
	10	나와 나, 우리 & 종결	서영은 <혼자가 아닌 나> - 노래 감상 후, 가사 토의 하기 - 내가 힘이 되어 주고 싶은 사람, 나에게 힘이 되어주 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 나 누고 노랫말 채워 부르기 - 지금까지의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이야기 나 누고, 노래 감상과 노래 부르기	- 노래 가사에서 ‘너는 항상 혼자가 아니야’, ‘다시 햇살은 비추니까’와 같은 긍정적인 내용을 통해 내담자 는 그룹 안에서 혼자가 아닌 ‘우리’ 라는 친밀감, 소속감 등을 느낄 수 있다. - 10회기의 프로그램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을 이야기 나눔으로써 자 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 고, 그룹원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 어 유대감과 긍정적 지지를 느낄 수 있다.

## 5.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20.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들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성별, 나이 등 일반적 사항에 대한 빈도를 분석하였다.

둘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동질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에 대한 Mann-Whitney U 검정을 실시하였다.

셋째, 프로그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전점수 차이의 영향을 통제된 후 사후 결과의 차이를 검증하는 공변량분석(ANCOVA)의 비모수검정인 순위 공변량분석(Ranked ANCOVA)을 실시하였다. 순위 공변량분석의 절차는 각 변인에 순위변수를 생성하여 회기분석한 후 잔차의 차이를 일원변량분석으로 분석하는 방식이다.

넷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과 사후점수에 대한 변화의 추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분석으로 Wilcoxon 대응 쌍 부호순위검정(Wilcoxon matched-pairs signed ranks)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각 척도의 하위요인에 대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여 결과가 유의미한지를 알아보았다.

표본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n=16) 모든 통계적 분석은 비모수 검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적 유의수준은  $p < .05$  이다.

## IV. 연구결과

본 연구는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실험집단 8명, 통제집단 8명으로 분류하여 노래중심 음악치료가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효과적인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설계되었다.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또래관계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대상자들에게 본 연구에서의 노래중심 음악치료를 실시한 후,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동질성 검증

####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나이, 가족유형, 소득계층, 음악치료 경험, 악기연주경험을 알아보았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성비는 실험집단은 남자 75%, 여자 25%로 남자가 더 많았고, 통제집단은 남자, 여자 모두 50%로 고르게 분포되었다. 두 집단의 평균 나이는 실험집단이 11.37세, 통제집단이 11.75세로 비슷하였고, 가족유형과 소득계층은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다양하게 나타났다. 음악치료 경험은 두 집단 모두 없었으며, 악기연주 경험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50%로 고르게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IV-1>과 같다.

<표 IV-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항목	구분	빈도		
		실험(%)	통제(%)	전체(%)
성별	남	6(75.0)	4(50.0)	10(62.5)
	여	2(25.0)	4(50.0)	6(37.5)
나이	10세	2(25.0)	0(0)	2(12.5)
	11세	3(37.5)	4(50.0)	7(43.8)
	12세	1(12.5)	2(25.0)	3(18.8)
	13세	2(25.0)	2(25.0)	4(25.0)
가족유형	다문화가정	2(25.0)	1(12.5)	3(18.8)
	한부모가정	3(37.5)	0(0)	3(18.8)
	조손가정	1(12.5)	1(12.5)	2(12.5)
	그 외	2(25.0)	6(75.0)	8(50.0)
소득계층	기초수급자	1(12.5)	0(0)	1(6.2)
	차상위계층	7(87.5)	8(50.0)	15(93.8)
	그 외	0(0)	0(0)	0(0)
음악치료 경험	있음	0(0)	0(0)	0(0)
	없음	8(50.0)	8(50.0)	16(100.0)
악기연주 경험	있음	4(50.0)	4(50.0)	8(50.0)
	없음	4(50.0)	4(50.0)	8(50.0)
	계	8(50.0)	8(50.0)	16(100.0)

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 동질성 검정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동일한 집단으로 구성되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자아탄력성과 자아탄력성 척도의 하위요인, 또래관계와 또래관계 척도의 하위요인 사전검사점수에 대해 Mann-Whitney U 검정을 실시하였다.

검정결과 자아탄력성 전체점수와 하위요인 점수, 또래관계 전체점수와 하위요인 점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p > .05$ ) 실험집

단과 통제집단은 동질한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표 IV-2>와 같다.

<표 IV-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 동질성 분석

측정치	실험집단(n=8)	통제집단(n=8)	U	Z	p
	평균순위(순위합)	평균순위(순위합)			
자아탄력성 전체	9.25(74.00)	7.75(62.00)	26.00	-.63	.528
대인관계	8.94(71.50)	8.06(64.50)	28.50	-.37	.712
활력성	8.81(70.50)	8.19(65.50)	29.50	-.26	.792
감정통제	8.69(69.50)	8.31(66.50)	30.50	-.16	.871
호기심	9.88(79.00)	7.13(57.00)	21.00	-1.16	.245
낙관성	8.44(67.50)	8.56(68.50)	31.50	-.05	.958
또래관계 전체	8.38(67.00)	8.63(69.00)	31.00	-.11	.916
사회적지지	8.94(71.50)	8.06(64.50)	28.50	-.37	.713
처벌주도권	8.25(66.00)	8.75(70.00)	30.00	-.21	.831
친밀	8.13(65.00)	8.88(71.00)	29.00	-.32	.751
우의	9.06(72.50)	7.94(63.50)	27.50	-.48	.631
대립	8.56(68.50)	8.44(67.50)	31.50	-.05	.957

## 2. 노래중심 음악치료가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 1) 자아탄력성 전체 점수에 대한 프로그램의 효과

음악치료 프로그램 실시 후 자아탄력성에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순위 공변량분석(Ranked ANCOVA)을 실시하였다.

검정결과 사전점수 차이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의 사후점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F(1, 14)=16.86, p <.01$ ). 이에 대한 결과는 <표 IV-3>, <표 IV-4>와 같다.

<표 IV-3> 자아탄력성 전체점수 순위 잔차의 평균과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실험집단(n=8)	1.80	1.96	.69
통제집단(n=8)	-1.80	1.52	.54
합계	0	2.52	.63

<표 IV-4> 자아탄력성에 대한 순위 공변량분석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p$
집단-간	51.95	1	51.95	16.86	.001**
집단-내	43.15	14	3.08		
합계	95.10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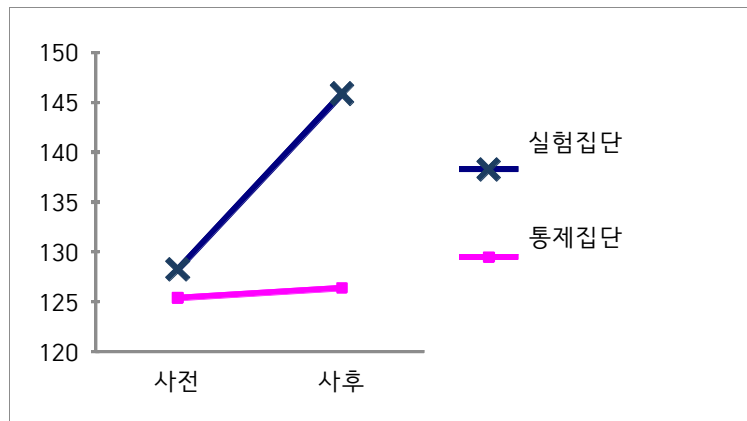
\*\*  $p <.01$

변화의 추이를 보기 위해 각 집단의 사전과 사후에 대한 Wilcoxon 대응 쌍 부호순위검정을 실시하였다. 실험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 $p <.05$ )를 보이며 평균이 증가하였으나, 통제집단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 >.05$ ). 이에 대한 결과는 <표 IV-5>, <그림 IV-1>과 같다.

<표 IV-5> 자아탄력성에 대한 Wilcoxon 대응 쌍 부호순위검정

	사전검사	사후검사	$Z$	$p$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실험집단	128.25(14.46)	145.88(18.50)	-2.52	.012*
통제집단	125.38(19.09)	126.38(15.57)	-.56	.573

\*  $p <.05$



<그림 IV-1> 자아탄력성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평균점수

## 2) 자아탄력성 하위요인에 대한 프로그램의 효과

노래중심 음악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이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에 비해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순위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검정결과 대인관계( $F(1, 14)=9.06, p <.01$ ), 활력성( $F(1, 14)=7.37, p <.05$ ), 감정통제( $F(1, 14)=5.81, p <.05$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호기심( $F(1, 14)=3.11, p >.05$ ), 낙관성( $F(1, 14)=1.84, p >.05$ )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IV-6>, <표 IV-7>과 같다.

<표 IV-6> 자아탄력성 전체 점수 순위 간차의 평균과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대인관계	실험집단(n=8)	2.07	2.58	.91
	통제집단(n=8)	-2.07	2.91	1.03
	합계	.00	3.41	.85
활력성	실험집단(n=8)	1.83	3.34	1.18
	통제집단(n=8)	-1.83	1.87	.66
	합계	.00	3.23	.81
감정통제	실험집단(n=8)	2.23	4.35	1.54
	통제집단(n=8)	-2.23	2.91	1.03
	합계	.00	4.25	1.06
호기심	실험집단(n=8)	.90	2.14	.76
	통제집단(n=8)	-.90	1.93	.68
	합계	.00	2.18	.54
낙관성	실험집단(n=8)	1.23	4.71	1.66
	통제집단(n=8)	-1.23	2.01	.71
	합계	.00	3.72	.93

<표 IV-7> 자아탄력성 하위요인에 대한 순위 공변량분석

하위요인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p	
대인관계	집단-간	68.63	1	68.63	9.06	.009**
	집단-내	105.99	14	7.57		
	합계	174.63	15			
활력성	집단-간	53.83	1	53.83	7.37	.017*
	집단-내	102.25	14	7.30		
	합계	156.09	14			
감정통제	집단-간	79.55	1	79.55	5.81	.030*
	집단-내	191.83	14	13.70		
	합계	271.38	15			
호기심	집단-간	12.91	1	12.91	3.11	.100
	집단-내	58.18	14	4.16		
	합계	71.09	14			
낙관성	집단-간	24.08	1	24.08	1.84	.196
	집단-내	183.18	14	13.08		
	합계	207.26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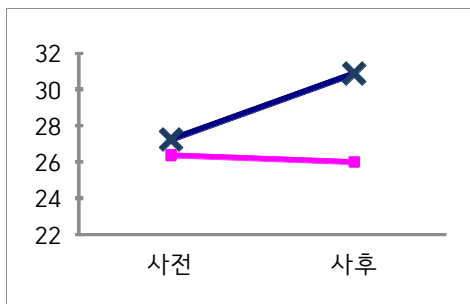
\*  $p < .05$ , \*\*  $p < .01$

각 하위요인의 집단별 점수변화의 추이를 보기 위해 각 집단의 사전과 사후에 대한 Wilcoxon 대응 쌍 부호순위검정을 실시하였다. 검정 결과 하위요인 모두 실험집단은 유의미한 차이( $p < .05$ )를 보이며 평균이 증가한 반면 통제집단은 유의미한 차이( $p > .05$ )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IV-8>, <그림 IV-2>, <그림 IV-3>, <그림 IV-4>, <그림 IV-5>, <그림 IV-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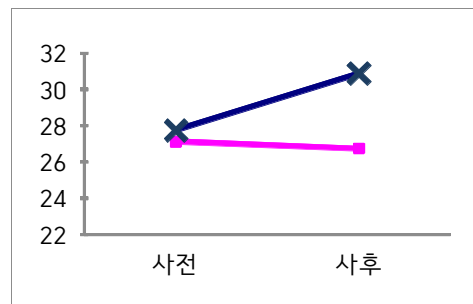
<표 IV-8> 자아탄력성에 대한 Wilcoxon 대응 쌍 부호순위검정

하위요인	집단	사전검사	사후검사	Z	p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대인관계	실험집단(n=8)	27.25(5.23)	30.88(4.82)	-2.39	.017*
	통제집단(n=8)	26.38(3.85)	26.00(3.82)	-.32	.752
활력성	실험집단(n=8)	27.75(4.20)	30.88(5.46)	-2.25	.025*
	통제집단(n=8)	27.13(4.79)	26.75(4.13)	-.34	.732
감정통제	실험집단(n=8)	23.13(2.80)	27.75(2.49)	-2.38	.018*
	통제집단(n=8)	22.75(3.37)	23.25(4.06)	-.78	.434
호기심	실험집단(n=8)	25.62(4.34)	28.75(4.56)	-2.53	.011*
	통제집단(n=8)	23.13(5.06)	24.75(3.77)	-1.62	.105
낙관성	실험집단(n=8)	24.50(3.02)	27.63(4.31)	-1.76	.079*
	통제집단(n=8)	26.00(5.45)	25.63(5.13)	-.36	.7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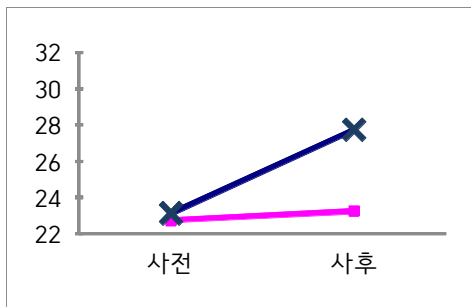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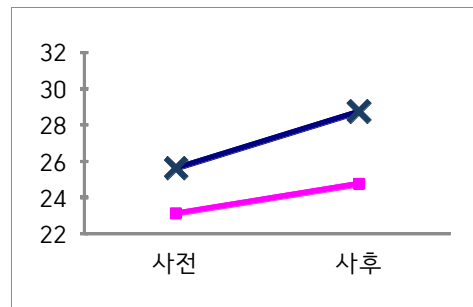
<그림 IV-2> 대인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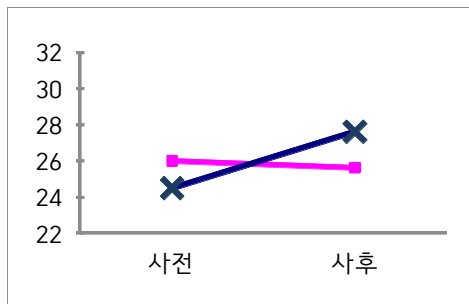
<그림 IV-3> 활력성



<그림 IV-4> 감정통제



<그림 IV-5> 호기심



<그림 IV-6> 낙관성

### 3. 노래중심 음악치료가 저소득층 아동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 1) 또래관계 전체 점수에 대한 프로그램의 효과

음악치료 프로그램 실시 후 또래관계에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순위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검정결과 사전점수 차이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의 사후점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F(1, 14)=44.87, p <.001$ ). 이에 대한 결과는 <표 IV-9>, <표 IV-10>과 같다.

<표 IV-9> 또래관계 전체점수 순위 잔차의 평균과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실험집단(n=8)	2.17	1.11	.39
통제집단(n=8)	-2.17	1.45	.51
합계	0	2.56	.64

<표 IV-10> 또래관계에 대한 순위 공변량분석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p
집단-간	75.15	1	75.15	44.87	.000***
집단-내	23.45	14	1.67		
합계	98.60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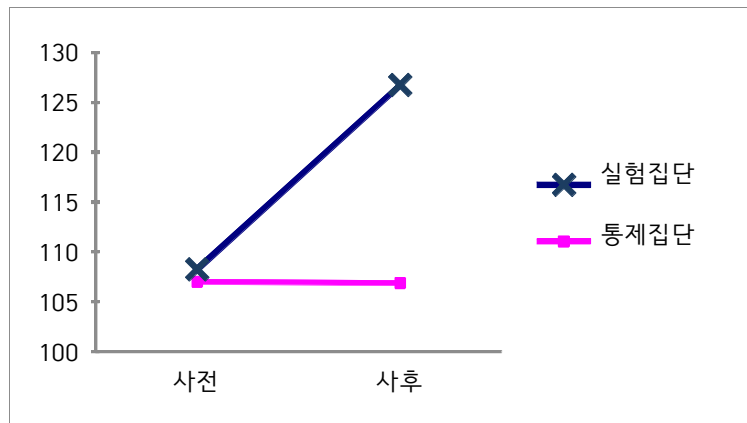
\*\*\*  $p < .001$

각 집단의 점수변화 추이를 보기 위해 각 집단의 사전과 사후에 대한 Wilcoxon 대응 쌍 부호순위검정을 실시하였다. 실험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p < .05$ )를 보이며 평균이 증가하였으나, 통제집단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 > .05$ ). 이에 대한 결과는 <표 IV-11>, <그림 IV-7>과 같다.

<표 IV-11> 또래관계에 대한 Wilcoxon 대응 쌍 부호순위검정

	사전검사	사후검사	Z	p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실험집단	108.25(24.62)	126.75(19.72)	-2.52	.012*
통제집단	107.00(16.41)	106.88(20.39)	-.35	.725

\*  $p < .05$



<그림 IV-7> 또래관계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평균점수

## 2) 또래관계 하위요인에 대한 프로그램의 효과

음악치료 프로그램 실시 후 또래관계의 하위요인에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순위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검정결과 사회적지지( $F(1, 14)=10.58$ ), 대립( $F(1, 14)=17.68$ )은 .01 수준에서, 처벌주도권( $F(1, 14)=7.54$ ), 친밀( $F(1, 14)=5.78$ ), 우의( $F(1, 14)=4.82$ )는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IV-12>, <표 IV-13>과 같다.

<표 IV-12> 또래관계 전체점수 순위 간차의 평균과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사회적지지	실험집단(n=8)	1.36	1.24	.44
	통제집단(n=8)	-1.36	2.01	.71
	합계	.00	2.14	.53
차별주도권	실험집단(n=8)	2.42	3.42	1.21
	통제집단(n=8)	-2.42	3.63	1.28
	합계	.00	4.23	1.06
친밀	실험집단(n=8)	1.76	2.49	.88
	통제집단(n=8)	-1.76	3.32	1.17
	합계	.00	3.37	.84
우의	실험집단(n=8)	1.43	1.67	.59
	통제집단(n=8)	-1.43	3.29	1.16
	합계	.00	2.92	.73
대립	실험집단(n=8)	3.23	2.82	1.00
	통제집단(n=8)	-3.23	3.31	1.17
	합계	.00	4.47	1.12

<표 IV-13> 또래관계 하위요인에 대한 순위 공변량분석

하위요인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p	
사회적지지	집단-간	29.55	1	29.55	10.58	.006**
	집단-내	39.12	14	2.79		
	합계	68.67	15			
차별주도권	집단-간	93.82	1	93.82	7.54	.016*
	집단-내	174.21	14	12.44		
	합계	268.03	15			
친밀	집단-간	49.76	1	49.76	5.78	.031*
	집단-내	120.52	14	8.61		
	합계	170.28	15			
우의	집단-간	32.83	1	32.83	4.82	.045*
	집단-내	95.26	14	6.80		
	합계	128.08	15			
대립	집단-간	167.36	1	167.36	17.68	.001**
	집단-내	132.55	14	9.47		
	합계	299.90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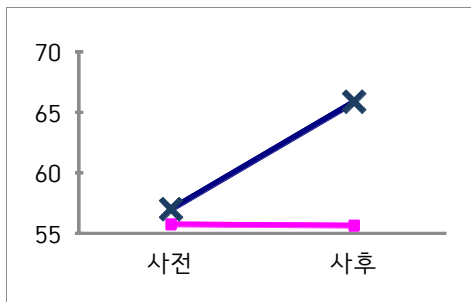
\*  $p < .05$ , \*\*  $p < .01$

각 하위요인에 대한 점수변화의 추이를 보기 위해 각 집단의 사전과 사후에 대한 Wilcoxon 대응 쌍 부호순위검정을 실시하였다. 검정결과 또래집단 하위요인의 실험집단은 사회적지지, 차별주도권, 친밀, 대립에서 유의미한 차이( $p < .05$ )를 보이며 평균이 증가하였으나, 우의는 유의미한 차이( $p > .05$ )를 보이지 않았다. 또래집단 하위요인의 통제집단은 모두 유의미한 차이( $p > .05$ )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IV-14>, <그림 IV-8>, <그림 IV-9>, <그림 IV-10>, <그림 IV-11>, <그림 IV-1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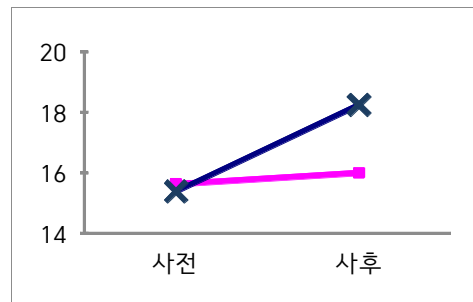
<표 IV-14> 또래관계에 대한 Wilcoxon 대응 쌍 부호순위검정

하위요인	집단	사전검사	사후검사	Z	p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사회적지지	실험집단(n=8)	57.00(16.65)	65.88(11.79)	-2.52	.012*
	통제집단(n=8)	55.75(11.95)	55.63(14.05)	-.34	.735
차별주도권	실험집단(n=8)	15.38(3.34)	18.25(2.49)	-2.54	.011*
	통제집단(n=8)	15.63(2.39)	16.00(14.05)	-.68	.498
친밀	실험집단(n=8)	14.00(5.29)	18.13(4.02)	-2.52	.012*
	통제집단(n=8)	14.25(4.46)	15.87(3.80)	-1.62	.105
우의	실험집단(n=8)	11.88(2.90)	12.88(2.47)	-1.84	.066
	통제집단(n=8)	11.63(2.45)	10.88(2.75)	-.96	.336
대립	실험집단(n=8)	10.00(2.14)	11.63(2.07)	-2.23	.026*
	통제집단(n=8)	9.75(1.67)	8.50(1.20)	-1.49	.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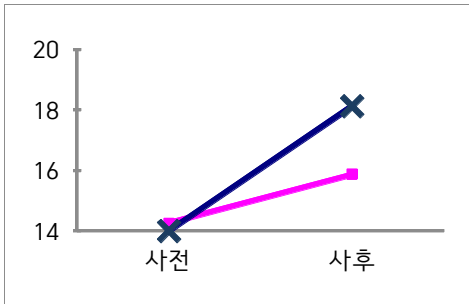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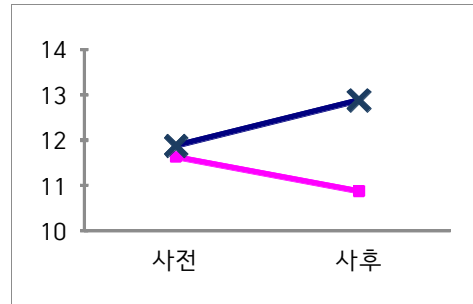
<그림 IV-8> 사회적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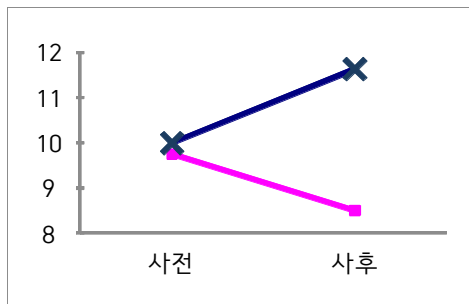
<그림 IV-9> 차별주도권



<그림 IV-10> 친밀



<그림 IV-11> 우의



<그림 IV-12> 대립

## V. 결 론

### 1.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노래중심 음악치료가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인천의 S구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동들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가정의 아동으로 실험집단 8명, 통제집단 8명을 무선배치 하였다. 2016년 2월 29일부터 3월 30일까지 회기 당 60분씩, 주 2회로 총 10회기에 걸쳐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연구자는 실험 전 설문지를 통해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였고, 자아탄력성 척도와 또래관계 척도를 사용하여 저소득층 아동의 사전과 사후 변화를 비교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0.0으로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노래중심 음악치료는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탄력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1, 14)=16.86, p <.01$ ). 노래중심 음악치료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자아탄력성은 유의미한 차이( $p <.01$ )를 보이며 증가하였고, 통제집단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 >.05$ ). 이러한 결과는 프로그램 내에서 의도한 집단원간의 상호작용과 자기표현, 감정 표출 경험 등의 요인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조경애, 2014). 위의 결과는 그룹음악치료가 시설아동의 자아탄력성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한 박지영(2011)과 이수성(2014)의 연구와 일치한다.

하위요인에서는 자아탄력성의 대인관계( $F(1, 14)=9.06, p <.01$ ), 활력성( $F(1, 14)=7.37, p <.05$ ), 감정통제( $F(1, 14)=5.81, p <.05$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호기심( $F(1, 14)=3.11, p >.05$ ), 낙관성( $F(1, 14)=1.84,$

$p > .05$ )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 중 호기심이 유의하지 않았다고 보고한 정기원(2014)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낙관성과 호기심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실험집단은 유의미한 차이( $p < .05$ )를 보이며 평균이 증가한 반면, 통제집단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 > .05$ ). 즉,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호기심과 낙관성의 증진을 목표로 시행된 회기가 비교적 짧게 진행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노래중심 음악치료는 저소득층 아동의 또래관계 향상에 효과가 있다( $F(1, 14)=44.87, p < .001$ ). 노래중심 음악치료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또래관계는 유의미한 차이( $p < .001$ )를 보이며 증가하였고, 통제집단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 > .05$ ).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는 그룹 음악치료에서 노래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 유대감 결속과 지지감 등 그룹 차원에서의 음악적 경험을 또래와 함께 공유하였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이수성, 2014). 또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아동은 또래 집단과 보내는 시간이 많고, 경제적인 환경과 활동 범위가 비슷하다. 이들에게 또래관계의 의미가 크게 작용하여(김희정, 정다운, 2011), 또래 그룹원과의 의미 있는 음악경험이 저소득층 아동의 또래관계 향상에 효과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실시한 노래중심 음악치료가 저소득층 아동의 또래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이 증명되었다. 이는 음악치료가 저소득층 아동의 또래관계 향상에 있어 효과성을 입증한 문지연(2006)의 연구와 일치한다.

하위요인에서는 또래관계의 사회적지지( $F(1, 14)=10.58, p < .01$ ), 처벌주도권( $F(1, 14)=7.54, p < .05$ ), 친밀( $F(1, 14)=5.78, p < .05$ ), 우의( $F(1, 14)=4.82, p < .05$ ), 대립( $F(1, 14)=17.68, p < .01$ )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였다. 두 집단의 사전과 사후 점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통제집단은 또래관계의 하위요인이 모두 유의미한 차이( $p > .05$ )를 보이지 않은 반면, 실험집단은 사회적지지, 처벌주도권, 친밀, 대립에서 유의미한 차이( $p < .05$ )를 보이며 평균이 증가하였다. 우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사전사후 검사 점수 비교 결과, 긍정적인 향상을 보여주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의 세션 초기에 대상자들은 노래 부르기, 노래 개사하기 등의 활동을 어렵게 느끼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등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회기가 진행될수록 노래와 활동에 대해 궁금해 하며 질문하는 횟수가 많아지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 활동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특히 노래 만들기 활동 후에는 ‘우리가 만든 노래 가사 적어갈래요’, ‘노래를 만들 수 있다니 신기해요’, ‘다음에 노래 또 만들어요’, ‘다시 하면 더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아동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사회적 대처능력과 원만한 또래관계 형성을 위한 심리적, 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노래 중심 음악치료가 저소득층 아동에게 적절한 대처능력과 심리·정서적 지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접근방법이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음을 경험적으로 밝힌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2. 제언

본 연구는 노래중심 음악치료가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또래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인천의 S구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동을 대상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각각 8명으로 구성되었다. 지역이 인천으로

국한되어 있고, 표본의 크기가 작아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수와 지역을 고려하여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프로그램은 주 2회씩 총 10회기로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되었기 때문에 노래중심 음악치료의 효과를 보편화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추후 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의 지속성은 알 수 없다. 후속연구에서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효과가 지속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대상자의 나이가 10세-13세로 비교적 그 차이가 크다. 또한 남자 6명, 여자 2명으로 성별의 비율에 차이가 있어 후속연구에서는 나이의 차이를 좁혀 비슷한 또래와 남녀의 비율을 고르게 한다면,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양적연구로, 일반 환경에서의 실제 저소득층 아동의 행동 변화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아동의 행동관찰을 통한 변화를 고찰하여 프로그램 안에서 음악치료사의 관찰이나 교사, 사회복지사가 지각하는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또래관계에 대한 양적·질적 연구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강운정 (1999). **결손가정 아동의 대인관계 증진을 위한 자기표출 훈련프로그램의 효과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강진령 (2011). **집단상담의 실제**(제 2판). 서울: 학지사.
- 구자운 (2009). 부모-자녀 상호작용을 활용한 집단게임놀이치료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효과. **통합치료연구**, 1(2), 109-128.
- 권진혁 (2015). **역할놀이를 활용한 자아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저학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기민희, 김미숙 (2014). 어머니의 과보호와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학교생활 적응 간의 관계. **학교사회복지**, 29(29), 585-612.
- 김경숙, 정광조 (2015).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이 시설보호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통합심신치유연구**, 2(2), 93-114.
- 김경희, 황혜정 (1998). 저소득층 아동의 정서 행동 문제와 부모의 자녀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1(1), 12-26.
- 김미정, 정계숙, 하은실 (2012). 어머니의 행복감 및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7(1), 183-203.
- 김보라, 이규민 (2010). 부정적 생활사건, 자아탄력성 및 또래관계가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학회**, 48(3), 1-24.
- 김서안, 권영란 (2016). 인간중심 집단미술치료가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23(2), 555-583.
- 김선정, 김근식 (2015). 집단음악활동이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 분석: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을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29(2), 209-225.

- 김수희 (2009).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위축행동 감소를 위한 가창 프로그램 연구.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6(1), 33-53.
- 김지선 (2010). 노래심리치료가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 김지연 (2005). 음악활동이 유아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영향. **한국음악치료 학회지**, 7(1), 19-34.
- 김진영, 고영진 (2009). 긍정 임상심리학: 멘탈 휘트니스(mental fitness)와 긍정심리치료(positive psychotherapy).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 문제**, 15(1), 155-168.
- 김혜정, 양은아 (2013). 기악합주활동 중심의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지역아동 센터 아동의 또래 관계 기술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9(4), 75-96.
- 김호정, 김나영 (2009). 무용/동작치료가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심리치료: 다학제적접근**, 9(2), 127-158.
- 김효지 (2010). 집단미술치료가 저소득층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 김희정, 정다운 (2011). 방과후 자아존중감 프로그램 참여가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 **생태유아교육연구**, 10(4), 71-90.
- 김희진 (1998). 어머니의 인지, 어머니의 지도/감독 행동, 그리고 유아의 또래간 유능성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19(1), 43-53.
- 나기은, 은혁기 (2014). 교육학 이론 및 실제: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주관적 안녕감이 또래관계와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초등교육**, 25(1), 75-91.
- 남현우, 이지현 (1999). 집단미술치료를 통한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자아개

- 년 증진. 미술치료연구, 6(1), 57-72.
- 노현미, 박인전 (2008). 집단미술치료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 정서적 외로움 및 고립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15(3), 469-488.
- 문경숙, 김종백 (2010). 가정 경제의 변화에 대한 지각과 중간체계 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정서프로파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2), 39-56.
- 문지연 (2006). 음악치료가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 문지영 (2007). 분열정동형 장애를 가진 성인과의 송라이팅을 통한 표현적·지지적 음악 심리치료. 한국음악치료학회지, 9(1), 77-91.
- 민하영, 권기남 (2004).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적응: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정체감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5(2), 81-92.
- 민하영, 김경화 (2007). 저소득 가정과 일반 가정 아동의 우울성향에 대한 부모 간 갈등과 양육행동의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6), 33-41.
- 박랑규, 강우선 (2006). 저소득층 아동의 정서, 행동 특성.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1(1), 1-23.
- 박상희 (2009).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 실패대성, 학교적응 관계 연구. 초등교육학연구, 16(2), 59-81.
- 박수정 (2003). 정서장애 청소년의 자기표현력 향상을 위한 음악치료적 접근: Song Psychotherapy를 이용한 질적연구 중심으로. 이화교육논총, 13(1), 281-290.
- 박용순 (1997). 저소득층 자립방안을 위한 사례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2, 91-112.
- 박은진 (2007). 노래 심리치료가 시설 아동들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 박은희 (1996). 자아탄력성, 지능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연구. 미간행 석

- 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인숙, 이현림 (2008). 집단미술치료가 고립아동의 우울성향, 또래관계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15(3), 411-430.
- 박종희, 박성옥 (2013). 집단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과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영향. *자연과학*, 24(1), 91-108.
- 박지영 (2011). 치료적 사물놀이 활동이 시설보호아동의 자아탄력성 증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 박환영 (2013). 노래중심 음악치료 활동이 초등학생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 배영옥 (2011).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부천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기독교대학교 대학원.
- 백경미, 최외선 (2012). 학급단위의 교류분석적 미술치료 운영형태가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한국미술치료연구*, 19(5), 1173-1191.
- 보건복지부 (2013). 아동 종합실태조사.
- 보건복지부 (201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보건복지부 (2015). 저소득 아동가구 생활실태 및 서비스 욕구조사.
- 서나현, 정여주 (2009). 집단미술치료가 빈곤가정 아동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심리치료: 다학제적 접근*, 9(2), 37-55.
- 서승미 (2005). 청소년의 음악 감상 행동에 관한 연구.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2(2), 1-14.
- 석주영, 박인진 (2009). 빈곤가정 아동의 또래예착과 자아탄력성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양부모가족과 여성 한부모가족 아동의 비교. *한국가*

- 죽복지학회지, 14(2), 29-50.
- 성자영 (2011). 게슈탈트 집단미술치료가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 **한국예술치료학회지**, 11(2), 45-71.
- 손정향 (2015). 노래중심 음악치료가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 손현겸, 곽현주 (2014). 우쿨렐레를 활용한 음악치료교육이 모자보호시설 아동의 정서지능과 자존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 **통합심신치유연구**, 1(1), 116-133.
- 신미경, 정규진, 최애나 (2011). 집단음악치료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7(4), 221-237.
- 신윤희 (2007). 음악치료가 저소득층 아동들의 감성지능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동서보완의학대학원.
- 양지은 (2007). 그룹 음악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4(1), 1-20.
- 여정윤 (2012). 음악치료활동이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4(1), 21-40.
- 오나영 (2015). 집단음악치료가 농촌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의 정서지능과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동서보완의학대학원.
- 유승은, 박부진 (2010). 사례연구: 집단모래놀이치료가 아동의 불안감소와 자아탄력성 증진에 미치는 영향. **놀이치료연구**, 14(1), 67-88.
- 윤다솔 (2016). 치료적 노래 만들기가 고등학교 특수학급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 윤현희, 홍창희, 이진환 (2001). 부모보고형 자아탄력성 척도의 개발. **심리과**

- 학, 10(1), 33-53.
- 이다은 (2010). 중도시각장애인의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한 치료적 노래 만들기(therapeutic song writing)사례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민화 (2014). 노래중심 집단음악치료 활동이 저소득층 아동의 자기표현,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 이수성 (2014). 그룹음악치료가 시설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국악 및 세계민속음악 활동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국악교육대학원.
- 이영나 (2005). ADHD 성향 아동의 창의성과 자기유능감 관계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은희 (2012). 모래놀이치료가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사례연구 중심으로. 한영연구논문, 4(1), 149-176.
- 이일경 (2015). 통합적 예술치료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11(3), 285-305.
- 이주리, 유안진 (1995). 유아 및 아동의 가정환경 및 또래환경과 역량지각. 대한가정학회지, 33(3), 127-147.
- 이한나, 양은아 (2015). 회고적 노래 만들기가 시설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11(1), 177-197.
- 이향숙, 최은영 (2013). 집단미술치료가 장애형제자매를 둔 비장애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미술치료연구, 20(2), 285-305.
- 이현송 (2008). 빈곤가정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사회복지 학생연구논총, 1(1), 104-161.
- 이현진, 이미옥 (2006). 협동작업중심의 집단미술치료가 저소득층 아동의 또

- 래관계 및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13(3), 459-481.
- 이혜영 (2005). 도시 저소득 지역의 교육복지 실태. 2005 교육인적자원혁신 박람회 정책세미나: 교육 소외계층의 교육복지 실태와 대책, 61-86.
- 이혜정 (2013). 노래중심 음악치료가 방사선치료를 받는 암환자들의 피로와 불안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 임윤영 (2013). 노래 만들기 활동이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 임현정 (2009). 노래심리치료가 내재화된 정서 문제를 갖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증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임희원 (2014). 집단미술치료가 저소득층 아동의 자기표현능력 및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예술치료학회지*, 2(1), 161-184.
- 장승희 (2007). 치료적 노래 만들기(therapeutic song writing) 활동이 청소년의 열등감 감소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전순영, 김동연 (2001). 저소득 및 결손가정 청소년들의 집단 미술치료를 통한 자기노출 사례. *미술치료연구*, 8(2), 37-72.
- 정기원 (2014). 음악놀이활동이 학교부적응 아동의 불안 및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 정용라 (2015). 노래 가사 토의가 뇌졸중 환자의 우울 및 재활동기에 미치는 효과.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12(1), 43-64.
- 정현정 (2009). 음악심리치료가 새터민 아동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6(1), 1-31.
- 정현주 (2005). *음악치료학의 이해와 적용*(제 1판).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정현주 (2011). **인간행동과 음악: 음악은 왜 치료적인가**. 서울: 학지사.
- 정현주, 김동민 (2010). **음악심리치료**(제 1판). 서울: 학지사.
- 정혜인 (2010). 아동의 학교적응성 탐색을 위한 자아탄력성척도 개발. **초등교육연구**, 23(2), 361-382.
- 조경애 (2014). **집단음악심리치료가 저소득층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 조경애, 강경선 (2014). 집단음악심리치료가 저소득층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예술교육연구**, 12(1), 85-103.
- 조동윤, 김광웅 (2007). 아동의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통제소재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0(3), 31-43.
- 조은희 (2009). **집단음악치료가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사회적 기술과 문제행동에 미치는 효과: 플루트 앙상블을 중심으로**. **한국예술치료학회지**, 9(2), 147-167.
- 진소영, 최병철 (2006). 노래의 가사가 개인의 음악선호에 미치는 영향. **한국음악치료학회지**, 8(1), 74-82.
- 채은혜 (2012). **집단음악치료가 저소득층 아동의 정서지능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세대학교 대학원.
- 최미환 (2006). **노래심리치료**. 정현주(편). **음악치료 기법과 모델**(pp. 236-266). 서울: 학지사.
- 최병철, 문지영, 문서란, 양은아, 김성애, 여정운 (2015). **음악치료학**(제 3판). 서울: 학지사.
- 최소림 (2006). **노래를 중심으로 한 집단음악치료활동이 장애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과 불안감소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숙

- 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최신형 (2007). 저소득층 부적응 아동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음악치료 프로그램 연구. **이화교육논총**, 17(1), 299-316.
- 최애나 (2007). 음악치료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3(1), 83-102.
- 최애나 (2012). 노래 중심 음악 치료가 다문화 가정 아동의 언어 발달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8(4), 1-19.
- 최외선, 전미향(1996). 아동의 부적응 행동 개선에 미치는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효과. **미술치료연구**, 3(1), 83-99.
- 최진영 (2015). 노래중심 음악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수용·표현언어 발달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 통계청 (2015).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비율(연도별, 근로자 가구)**.
- 한국개발연구원 (2009). **우리나라 빈곤변화 추이와 요인 분석**.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2015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 경제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의 변화실태와 사회안전망 평가 및 향후 대책방안.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11(1), 1-257.
- 한지현(2005). 공격성 아동을 위한 음악치료: 타악기 연주활동 중심의 사례 연구.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2(2), 33-56.
- 허선윤, 이숙 (2010). 사례연구: 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내면화 장애에 미치는 효과. **놀이치료연구**, 14(3), 75-92.
- 허혜진 (2010).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또래 관계 기술 증진을 위한 창작 음악

- 극 프로그램 효과 연구.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7(1), 37-59.
- 현수경 (2000). **Songwriting을 사용한 음악치료가 알코올 환자의 자아존중감 및 통제소 인식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 홍성희, 김경희 (2005). 친구관계의 질에 영향을 주는 부/모 애착과 자기역량 지각. *아동학회지*, 26(2), 225-242.
- 황순택, 구형모, 김지혜 (2001). 자아탄력집단의 성격특질.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3), 569-581.
- Austin, D. S. (2008). *The theory and practice of vocal psychotherapy: Songs of the self*. London: Jessica Kingsley Publishers.
- Bailey, L. M. (1984). The use of songs in music therapy with cancer patients and their families. *Music Therapy*, 4(1), 5-17.
- Baker, F., & Wigram, T. (2008). *Songwriting: methods, techniques and clinical applications for music therapy clinicians, educators and students*. 최미환(역). **치료적 노래 만들기: 음악치료의 임상 및 교육을 위한 지침서**. 서울: 학지사(원서출판 2005).
- Block, J., & Kre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361.
- Borczon, R. M. (1997). *Music therapy: group vignettes*. Gilsum, NH: Barcelona Publisher.
- Bruscia, K. E. (2006). The dynamics of music psychotherapy. 최병철, 김영신(공역). **음악 심리치료의 역동성**. 서울: 학지사(원서출판 1998).
- Colwell, C. M., Davis, K., & Schroeder, L. K. (2005). The effect of composition(art or music) on the self-concept of hospitalized

- children. *Journal of Music Therapy*, 42(1), 49-63.
- Daniel, B., & Wassell, S. (2008). Assessing and promoting resilience in vulnerable children. 강문희, 손승아, 안경숙, 김승경(공역). **아동의 탄력성 평가와 개입 전략**. 서울: 시그마프레스(원서출판 2002).
- Duncan, G. J., & Brooks-Gunn, J. (1999). *Consequences of growing up poor*. New York: Russell Sage. Cox.
- Funder, D. C., & Block, J. (1989). The role of ego-control, ego-resiliency, and IQ in delay of gratification in adolesc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41-1050.
- Furman, W., & Burhmester, D. (1985).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personal relationships in their social networks. *Developmental Psychology*, 21(1), 1016-1022.
- Higgins, R. O. C. (1983). *Psychological resilience and capacity for intimac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rvard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 Hoge, D. R., & McCarthy, J. D. (1984). Influence of individual and group identity salience in the global self-esteem of yout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2), 403-417.
- Klohnen, E. C. (1996).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resili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5), 1067.
- Mcferran, K. (2012). Adolescents, music and music therapy: Methods and techniques for clinicians, educators and students. 최미환, 홍인실, 장은아(공역). **청소년 음악치료: 임상 및 교육을 위한 방법과 기법**. 서울: 희망예술기지(원서출판 2010).

- Masten, A. S. (2001). Ordinary magic: Resilience process i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6*(3), 227-238.
- Qi, C. H., & Kaiser, A. P. (2003). Behavior problems of preschool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Review of the literature. *Topics i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23*(4), 188-216.
- Silverman, M. J. (2003). *Contingency songwriting in the treatment adult with mental disorders: Theoretical basis and clinical interventions*. New York: Shirmer.
- Strayer, J., & Roberts, W. (1989). Children's empathy and role taking: Child and parental factors, and relations prosocial behavior.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0*(2), 227-239.

## ABSTRACT

### **The Effects of Song-focused Music Therapy on Ego-resilience and Peer Relationship of Children in Low-income Families.**

Bang, Eun Mi

Department of Music Therap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was intend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ong-focused music therapy on ego-resilience and peer relationship of children in low-income families. 16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y in community child center in S-gu, Incheon-si were selected as the research subject and randomly assigned 8 children to the experiment group and 8 children to the control group.

The song-focused music therapy program was from February 29 to March 30, 2016, and total 10 sessions were conducted for twice a week for 60 minutes per session. This study organized and conducted song-focused music therapy program that includes listening to songs, singing, communicating through song, discussing lyrics, and creating a song(filling in the blank, rewriting songs).

Pre·post test was conducted on the experiment group and control

group using ego-resilience scale and peer relationship scale before and after the song-focused music therapy activities.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through frequency analysis, Mann-whitney U test, Ranked ANCOVA, and Wilcoxon Matched-Pairs Signed-ranks using SPSS 20.0 statistics program.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 the control group did not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ego-resilience and peer relationship ( $p >.05$ ), but it was effective for the experiment group as ego-resilience( $F(1, 14)=16.86, p <.01$ ) and peer relationship( $F(1, 14)=44.87, p <.001$ )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The research result signifies that the song-focused music therapy can be an effective therapeutic intervention method that can improve ego-resilience and peer relationship of children in low-income families.

## 부 록

<부록 1> 프로그램 참여 동의서

<부록 2> 일반적 특성 설문지

<부록 3> 자아탄력성 척도

<부록 4> 또래관계 척도

<부록 5> 9회기 노래 만들기 악보





<부록 3> 자아탄력성 척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주어 감사합니다.  
 이 설문지는 여러분이 평소에 자기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맞거나 틀린 답이 없으며, 문항내용에서 나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빈 칸에 표시하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이 답해준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되지 않으므로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음악치료학과 방은미

● 잘 읽고, 자신이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한 곳에 √ 표시해주세요.

문항 번호	문항내용	매우 그렇 다	그렇 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친구들의 말을 존중해 준다.					
2	나는 할 일이 생기면 하던 일을 끝내놓고 한다.					
3	나는 화가 나면 욕을 잘 한다.					
4	나는 새로운 반 친구가 생기면 그 친구에게 말을 건다.					
5	나는 어려운 일에 부딪혀도 잘 될 것이라 생각한다.					
6	나는 친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도와준다.					
7	나는 친구들을 보면 먼저 상냥하게 말을 건넨다.					
8	나는 화가 난 경우에 혼자 시간을 보내며 머리를 식힌다.					
9	나는 새로운 물건을 보면 그 물건에 대해 호기심을 가진다.					
10	나는 친구의 나쁜 점 보다 좋은 점을 발견하려고 노력한다.					

문항 번호	문항내용	매우 그렇 다	그렇 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1	나는 친구가 고민하면 내 일 같이 함께 고민한다.					
12	나는 우울할 때보다 즐거운 때가 많다.					
13	나는 친구와 싸웠을 때 그 친구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본다.					
14	나는 가보지 않았던 길도 혼자서 잘 다닌다.					
15	나는 시험을 못 보았어도 다음번에는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6	나는 친구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준다.					
17	나는 잘 웃는다.					
18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결과를 미리 생각해 본다.					
19	나는 궁금한 것(알고 싶은 것)이 많다.					
20	나는 일이 잘못되어도 좋은 쪽으로 생각한다.					
21	나를 만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나를 좋아했다.					
22	나는 무슨 일이 있을 때 앞장서서 한다.					
23	나는 일이 내 뜻대로 안될 때 신경질을 낸다.					
24	나는 새로운 것을 보면 그것을 시도해 보려고 노력한다.					
25	나는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일이 많다고 생각한다.					
26	나는 내가 잘못했을 때 먼저 사과한다.					
27	다른 사람들은 내가 활기차다고 말한다.					
28	나는 화가 나면 그 일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한다.					
29	나는 무엇(공부, 놀이)을 할 때 친구들과 다른 방법으로 한다.					

문항 번호	문항내용	매우 그렇 다	그렇 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30	나는 걱정거리가 있으면 잠을 못 잔다.					
31	나는 나에게 잘해주는 친구하고만 사귈다.					
32	나는 새롭고 신기한 일에 흥미를 가진다.					
33	나는 화가 나도 겉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34	나는 교과서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사전을 찾는다.					
35	나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쉽게 포기한다.					
36	나는 내 또래 친구들과 만나는 것을 좋아한다.					
37	나는 우울할 때가 많다.					
38	나는 기분이 나쁜 경우에도 마음의 평화를 바로 찾는다.					
39	나는 모르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물어서라도 알려고 한다.					
40	내가 하는 일에 자신감이 없다.					

♪ 수고했습니다. 빠진 문항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 ♪

<부록 4> 또래관계 척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주어 감사합니다.  
 이 설문지는 여러분이 평소에 또래관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맞거나 틀린 답이 없으며, 문항내용에서 나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빈 칸에 표시하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이 답해준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되지 않으므로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음악치료학과 방은미

● 잘 읽고, 자신이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한 곳에 √ 표시해주세요.

문항 번호	문항내용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친구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낸다.					
2	나와 친구들이 의견이 달라 맞설 때가 많다.					
3	친구들은 내가 모르는 것을 잘 가르쳐 준다.					
4	나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만족 한다.					
5	나는 친구들과 나의 일을 말하기를 좋아한다.					
6	나는 친구들이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을 경우 잘 도와준다.					
7	친구들은 나를 좋아하고 사랑한다.					
8	친구들은 나를 괴롭힌다.					
9	친구들은 나를 존중한다.					
10	친구들은 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잘해준다.					

문항 번호	문항내용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1	무슨 일이 있어도 나와 친구들과의 관계는 계속 될 것이다.					
12	나는 친구들과 같이 놀 때 즐겁다.					
13	나와 친구들은 생각이나 의견이 다르다.					
14	친구들은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 잘 도와준다.					
15	나와 친구들 사이의 일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16	나는 친구들과 비밀 이야기를 잘한다.					
17	나는 친구들을 보호하고 지킨다.					
18	친구들은 나에게 대해 관심을 기울인다.					
19	내가 친구들의 말을 듣지 않을 때 친구들은 나를 비난한다.					
20	친구들은 내가 여러 가지 일을 잘 한다고 인정해 준다.					
21	친구들은 나보다 지배적이다.					
22	내가 친구들과 의견이 다를지라도 친구 관계는 지속될 것이다.					
23	나는 친구들과 즐거운 일이 많다.					
24	나는 친구들과 논쟁을 자주한다.					
25	친구들은 나를 많이 도와준다.					
26	나와 친구들과의 관계는 좋다.					
27	나는 알리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친구에게 이야기를 잘한다.					
28	나는 친구들을 잘 돌보아 준다.					

문항 번호	문항내용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29	친구들은 나에게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다.					
30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을 때 많이 꾸짖는다.					
31	친구들은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하며 찬성한다.					
32	나와 친구들 사이의 일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친구들이 결정하는 편이다.					
33	앞으로 나와 친구들과의 관계가 계속 좋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 수고했습니다. 빠진 문항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

<부록 5> 9회기 노래 만들기(개사하기) 악보  
 (주제- 미래에 대한 희망)

우리의 꿈

작곡 이한철  
 원곡 슈퍼스타

들어봐 - 나의 꿈 - 은과 - 학자 이 건 다 - 첫 - 살 - 때 가 진 - 꿈  
 우리가 - 이야 기 - 나 눈 - 것 들 모두 다 - 이 루 어 질 거 - 야 -  
 과학 공 부 열 심 히 - 한 다 면 - 이 를 수 있 을 거 야 - 들 어 보  
 그 령 게 생 각 을 한 - 다 - 면 - 우 리 는 행 복 - 해 - 우 리 의  
 나 의 꿈 - 은 오 - 리 사 이 건 일 - 꿈 - 살 때 가 진 - 꿈  
 꿈 을 위 - 해 서 - 는 - 노 력 을 - 많 - 이 - 해 야 - 해  
 간 식 많 이 만 들 어 본 다 - 면 - 요 리 사 될 수 있 어 - (다 같이) 괜 찮 아  
 우 리 는 할 - 수 - 있 - 어 - 모두 - 화 이 - 텀  
 - 잘 될 거 - 야 - 너 에 겐 - 눈 부 신 미 래 가 있 - 어 - 괜 찮 아  
 - 잘 될 거 - 야 - 우 름 널 - 믿 어 의 심 치 않 아 -